朝鮮日報
夕刊 一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崗李家君陳庄確保코
郭圍子에肉迫
明光西南에서激戰展開

【南京三十一日發同盟】三十日燃燈寺를 占領한 添田部隊의 一部○○隊는 三十一日早朝寒風을冒하고 進軍、燃燈寺西北部落을 奪取하고 正午지나 崗李家、君陳庄一帶의線을 確保하얏다

【南京三十一日發同盟】三十日正午大韓庄(明光西北約七粁)을 攻略한 添田部隊는三十一日朝殘雪을밟고 津浦線에沿하야 猛進을 繼續目下明光의 西方約十粁에잇는 郭圍子에 肉迫하여잇다

【上海三十一日發同盟】三十日早曉我田代部隊는 明光의 西南方에서 敵大部隊와 遭遇、殘雪의曠野에서 壯烈한早曉戰을展開하야 敵에게 殲滅的打擊을 與하엿다 敵은 死體一千餘를遺棄하고 潰走하엿다 이戰鬪는 今年最初의 激戰으로 我方에도 戰死傷者合二十五名을 내엿다

貴族院本會議
鹽野法相答辯은
現內閣의正義論에矛盾
三室戶敬光子(研究)質問

【東京電話同盟】一日의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二十分에 開會하고
一、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
一、民法中改正法律案
一、外國裁判所의 囑託에 依하는共助法中 改正法律案(以上政府提出)
의三案을 一括上程하고 久山司法政務次官이 提案의 理由를說明한後 委員에게 附託하고
一、特許法中改正法律案
一、商標法中改正法律案
一、不正競爭防止法中改正法律案
一、辯護士法中改正法律案
(以上政府提出)
의四案을 一括上程하고 西鄕委員長이 委員會의經過와 結果를報告可決하고 다음 田中舘愛橘氏(無所屬)羅馬字新綴方의 實施와 米英問題에對하야 再質問하고 木戶文相 當局으로서는 羅馬字新綴方이 漸次一般에게 普及되기를 希望한다 敎科書檢定한境遇에는 勿論新綴方을採用할생각이다

松本外務次官으로부터答辯이잇고 平沼亮三氏(同成)■國民體位向上에關한 大日本體育協會 그他各種運動團體의 活躍狀況을述하야
一、政府는 此等의 關係團體와 眞心으로 提携하고 協力할意思가잇는냐
一、體育運動指導者養成에對하야 如何한생각이잇는냐
一、社會的體位向上은 廣義國防上 極히 必要한것인데 厚生相의 所見如何
一、政府는 今回에 새로入場料稅를新設하엿는데 同入場料稅에도 厚生과『덩서』를 同樣으로 取扱함은 조치못하다고생각하는데如何

木戶厚生相 厚生省이設置된目的의하나는 國民의體位向上에잇다 國民의體位向上에 對하야는 衛生設備를 充實히하는同時에 健康의增進을 圖하고 體位向上에 必要한方策을 세워 指導와監督上 遺憾이업기를期하기爲하야 近近準備調査를하기로되엿다 厚生省에서各團體를 補助하고잇다 將來에그施設의 充實을圖하고십다 明治神宮體育大會에對하야도 可及的援助하야그目的達成에努力하고십다 神宮競技場의 擴張은 神域에잇기때문에 愼重히考究치안흐면안되리라생각한다 入場料稅에는 [illegible]

三室戶敬光子(研究) 林前內閣은 祭政一致를標榜하고 近衛內閣은國際正義 社會正義를强調하는데 鹽野法相은 現內閣에留任하고잇다 그런데法相의 帝人事件에關한 衆議院豫算總會에잇서서의 答辯에對하야보면 全然一片의法律家的答辯이오 現內閣의基調로하는 正義와矛盾되지안는냐하는感이잇는데 法相의所見如何

鹽野法相 現內閣이 正義를 基調로함은 말한바와갓다 帝人事件이 長期에亘한 審理의 結果 犯罪가 되지아니한것은 明하야 關係者에게 不安을준것은 甚히 遺憾으로 생각한다 新聞記事에 對하야 聲明이나 談話이나하나 그것은新聞紙의 取扱如何에 依하는것이다 辯護士中에 檢察當局의 責任을 追及하는者가잇다고하나 檢事는 起訴當時의 證據事實에 依하야 바른바 權限內에서 한것이므로 責任을 질것은 업다고 생각한다 그가튼 事件이 長久한 時日에 亘하야 여러가지 疑惑을내엿슴은 余로도 甚히 遺憾으로생각한다 將來過誤가업기를 期約하고잇다

三室戶子 歎願書의 問題에 對하야도 貴族院에잇서의 答辯은 甚히 不充分하다고생각한다 法相은 調査中이라하엿스나 調査의結果가 다되엿스면 듯고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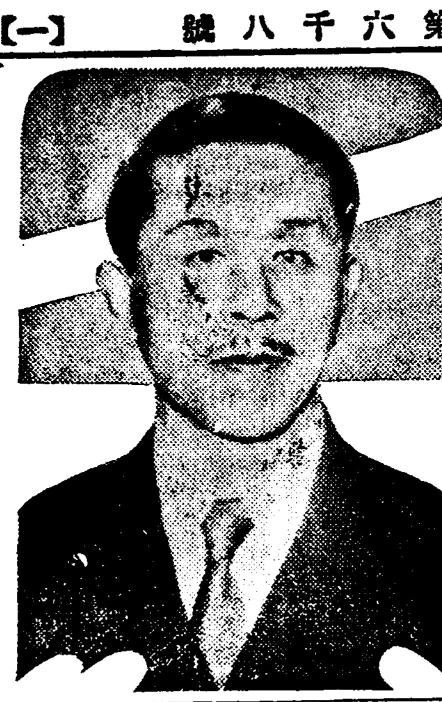
法相 歎願書의件은 直接 事件의 發端에 關係가업다고생각한다

三室戶子 國體明徵、神社崇敬의 觀念가 [illegible] 그런데 近者 內務省에서는 [illegible] 東大法學部敎授田中耕太郞著『法과宗敎』와『社會生活』은 甚히奇怪한것이다 그가튼 思想을가지고잇는 敎授가 私立大學보다 도리혀 帝大에 만타 政府는 此等에 對하야 一大鐵槌를 加할것이라고생각하는데 如何

末次內相 國體明徵과 神社崇拜는 內務省에서도 거괴注意하고잇다 田中博士의 著書에 奇怪한것이 씨여잇다고하나 그것은 事實을 잘調査한後에 善處하고십다 帝大敎授에게 匪心한者가잇스면 容赦업시 措置할생각이다

木戶文相 田中博士의 著書에 씨여잇다고하나 愼重히調査한後 善處할생각이다

어려하야 午後零時一分에 散會하얏다



新政權에對해서도
賠償金을要求!
外相 衆院豫算總會서答辯

【東京電話同盟】一日의衆議院豫算總會는午前十時四十二分에開會하고 田子委員長으로부터 今日終了할 豫定이엿스나 아직도質問通告者가多數잇기때문에 二月二日까지延期하기로하엿다고 말하고 今後에 質問은 一人一時間으로 限定하고싶다고諮問하야그대로 決定하고

中島彌團次氏(民政) 日本은 支那를 어떠케하려는것이냐 이것이國民이 가장듯고싶어하는바이다 獨逸大使에게 提示하엿다고하는 對支基本條項四個條는 新興政權에 對하야도 要求하는것이 아니냐 現今蔣政府와 我國에 對하야 가지고잇는 權利義務를一切新政權에 繼承시키는것이냐

廣田外相 帝國政府는 今次事變解決方法으로 蔣介石과 直接交涉에 依하야 決定할方針이엿스나 反省치아니하기때문에 이와 關係를斷絕하고 새로이 러나는政權이 支那의統一政府가될을 기다려 我國과의 國交의 調整을圖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兩國提携의 根本觀念으로는 獨逸大使에게 提示한 四個條로 潮하야 생각하나 그四項의 內容에 對하야는 아직 分明치아니하나 提示하엿스므로 諒解하여주기 바라는데 이四條項以外에 條件은 絕對로업다 日本의 眞意를 理解하야 支那全體에 한다고생각한다

中島氏 日滿支의 經濟協定의 內容如何

外相 整理的으로는 支那全體에 對한 經濟協定을 생각하고잇고 資源의開發 交通貿易等의 各分野에 對하야도 생각하고 또 日支間의 特殊事情에 鑑하야 特別한協定이될 境遇도잇다

中島氏 關稅調節을 如何히하겟느냐

外相 支那側의 從來의 不當한 稅率을 輕減시켜 互惠의 稅率로하고싶다

中島氏 賠償金의 問題를 如何히 하겟느냐

外相 蔣政權에 對하야는 今後 再次 今回와가튼 事件을 反復치안토록 賠償金을 要求할方針인데 新政權에 對하야도 同樣이다

中島氏 新政權에對한 賠償金의 方針如何

外相 我國으로부터 駐兵하는境遇 그費用을 負擔케하기를생각하고잇다

中島氏 日獨支가 防共協定을締結한境遇 日本은支那에 對하야 國防上 이責任을 지지안흐면안될 境遇가생기리라고생각하는데 意見如何

外相 그것은 國際情況을 따라 或은 日支間에 그런 條約을締結할 必要가 생길는지모른다

中島氏 藏相은 그事態에 對하야 [illegible]할 充分한 確信이잇느냐

藏相 그境遇에는 充分히對處할決心이다 努力하야 國力을總一하면 此等의難局을 突破하는데 充分히 힘이잇다고 確信한다

中島氏 陸相에게그自信이잇느냐

陸相 充分히自信이잇다

外相 벌써現實에잇서서 疑惑하고잇는情況을 基礎로하는것이다 日本側에서 內部的些少한 狀態에까지 干涉할생각은업다

中島氏 現今되어잇는 顧問에依하야 이를指導하는것이냐

陸相 現在의顧問은 蔣의顧問이오 支那政府의顧問은아니다

外相 北支의情況은現在 戰時狀態에잇서 北支新政權을 即時 中央政府로 認定함은 아니므로 저便의希望에應하야 顧問이 設置되는것이다

中島氏 戰時狀態이므로 陸軍이中心으로 北支의建設工作을遂行하고잇다하는데 新興政權을 援助함은 國策에從하야 하는것이므로 何等特別機關을 設置할생각은업느냐

首相 只今企畫院에서 그對策을 講究하고잇스나 만히協力하야 新興國을 만들생각이다

中島氏 第三國으로하야금 新興政權을 承認케하도록 工作하고잇느냐

外相 新興政權이 支那의中央政府로되며 第三國이 반드시이를 承認하게되리라고確信한다

中島氏 北支開發計畫은 閣議에서 決定되엿슬터인데 이를公表하기바란다

外相 北支經濟的活動의 指針으로 無統制한것은아니다 將來에는 國策會社로하야금 統制케하기로되엿스나 即時國策會社가 成立될수업는事情도잇슴으로 當分間 各事業에對하야 內地의重要한會社 或은組合에도 事業者手量認定하겟다

中島氏 滿洲產業開發五個年計劃은 어떠케할것인가 滿鮮北支를一體로한 大陸鐵道計劃은如何히 되엿는가

陸相 大陸鐵道一元化問題는 研究中이다

中島氏 研究中만으로는 안된다 現地는 大問題로되여잇다

陸相 軍의作戰上要求로보면 一元化하여야할것이나 種種特殊事情도잇서서 即時一元化하기는 困難하다

다음에 中島氏와 藏相과의間에 滿鐵資金問題에對하야 問答이잇고 午後零時廿五分休憩

(寫眞은 廣田外相)

米陸戰隊全部
上海로부터撤收

【華盛頓三十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上海의 情勢好轉에 鑑하야 昨年八月同地에 派遣한 陸戰隊全部를 撤收시키기로 決定하고 三十一日 海軍省으로부터 次와가티 發表하엿다

海軍省은昨年八月에샌디에고港에서上海에派遣한陸戰隊一千五百名을來月중순경主港에移轉시키기로되엿다 上海의情勢는벌써 此等部隊의 駐屯을 必要로하지안키때문이다 但 同陸戰隊가 恒久的으로 호놀룰루에駐屯하야 眞珠灣根據地를强化하게될는지 아니하게될는지는아직 判明되지아니한다

對支援助決議案
英佛蘇支四代表間意見一致
非公開會議에서審議

【쥬네브三十一日發同盟】英國代表크란본 佛國代表데-보스 蘇聯代表리트비노프 支那代表顧維鈞等은 一日의 理事會非公開會議를 압두고 三十一日午後에 聯盟事務總長室에 會合하고 아브놀 對支援助決議案의 字句에對하야 協議한結果 [illegible] 一致하엿다 따라서 決議案은一日午前에 各國代表에게配付될터인데 本國政府에 請訓하기爲하야 審議延期를 要求하는者가업스면 即時 午後零時半에 열리는 非公開會議에서 이를 審議可決할터인데 決議案은 各國別로 對支援助의 原則을 規定한것으로 要旨는 左와갓다고 觀測된다

聯盟理事會는 一九三七年十月六日에 聯盟總會가 採擇한對支援助考慮의 主旨를 包含한決議에 對하야 聯盟國의 深甚한注意를 喚起하고 聯盟國이 各國別로 支那를 援助하기를 期待한다

新嘉坡大演習
注視裡行動開始

【新嘉坡三十一日發同盟】東洋防衛의 [illegible] 特히注視되는 新嘉坡攻防大演習은 바야흐로 來二月一日부터 五日까지 四日間에亘하야 擧行되게되야 新嘉坡軍港에서는 待機中이든 攻擊軍艦隊 旗艦 坐乘한 노-포-크號는 三十一日 에머랄드號와 航空母艦이글號 其他를 따라 支那海方面에 出動하엿다

米海軍豫行演習

【桑港(加州)卅一日發同盟】合衆國艦隊의 戰艦主力艦十隻高級巡洋艦十三隻 航空母艦三隻驅逐艦五十餘隻 潛水艇數隻은 三十一日 加州샌피드로로 軍港을 中心으로 壯烈한 攻防演習을 開始할 行動範圍는 四萬海哩에 亙한다 하엿다 演習은 來三月에 擧行할 年次大演習의 豫行으로 二月四日까지 五日間에亘하야 立體戰이 展開될터이다 今回의演習에는 [illegible]提督의 後任司令長官에 就任한 [illegible]提督이 初陣의 指揮에當하고잇다

時事解說
斷種法立案說

新設될 厚生省에서는 非常時의保健國策의 하나로 斷種法의立案에 着手하엿다고 報한다 이問題는 日本에서만도 꽤 오래前부터 議論되야 오든것인데 그동안 한개의 學說 或은 한개의 議論의取扱으로 끗치못하다가 再昨年에야 비로소 民政黨의 八木一郞代議士에 依하야 議會의問題로 登場하게까지되엿고 이번에 새로 [illegible]하고 「民族의 [illegible]」 [illegible]하기爲하야 그立案의實際에까지 이른것이다。

×

그런데 이斷種法은 일직 [illegible] 시리아、로-마」「스로-든」 等에서 民族衛生을 爲하야 [illegible]方法으로 實施된일이 잇섯다 그러나 이것이 民族衛生學的目的아래서 施行되고잇는곳은 米國으로서 이나라에서는 近三十年前부터 各州에서漸次로 이에 對한 法規를 制定實施하고잇스며 歐洲에서는瑞西、丁抹等에서 어[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이問題에 對하야 가장 [illegible]硏究를 거듭하야온나라는 [illegible]이다 일즉一九二八年에 작센政府로부터 이法案이 聯邦會議에 [illegible]된일이잇섯거니와 一九三三年「나치스」執政以後에 어떠한 [illegible]보다도 民族의 [illegible]化를 [illegible]하야 [illegible]民族의 [illegible]을 本質的으로 强化한다는 目標下에서 이것을 實施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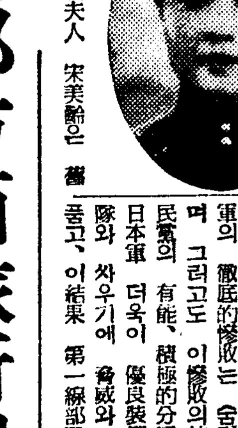
×

그리고 [illegible] 이問題에 對하야 [illegible]硏究되고잇다고한다。

그러면 世人은 안락가티 이에 [illegible] 新斷種法은 [illegible] 國民을 [illegible]부터 救出하엿다 [illegible] 다시 民族絕滅의 [illegible]로부터 救出하는것은 政府의새로운任務다」

이와가티 [illegible]의斷種法은 [illegible] 多分이 包含된 政治的色彩가 濃厚한것이엿다 그러나 方今 厚生省에서 立案中에잇는것은 이런 [illegible]의 政治的意味가업고 單純히 優生學的立場、民族衛生學的立場에서 考慮되는것이라 한다。

荒唐無稽한
宋美齡舊正辭



【香港三十一日發同盟】當地滯在中인 蔣介石夫人 宋美齡은 舊正月을 마지한 支那國民에게對하야 元日의人事로 香港데일리푸레스紙에 左와가튼 荒唐無稽한 메세지를 發表하야 國民의 抗戰熱을 煽動하고잇다

中國民衆은 陰曆一九三八年의 新春을 悲觀的環境裡에 마지하엿다 [illegible]하지안흐면 안될狀態에 잇다 昨三十七年에 我中國은 統一의希望에 불타고 經濟的復興도 相當히 進捗되고 國民도 新生活運動에 依하야 潑剌한 生活을하고 公路와鐵道는 次第로 擴張되고 各省의連絡은 自動車路에依하야 漸次로 確立되고 또廣東、上海와中部支那間에는 新鐵道도 敷設되고 西南地方을 貫通하는 輸送路와 또香港과 南支의 連繫는 益益密接하게되는 趨勢에잇섯다 昨年末에는 工業、商業이 好況으로 移行을보이고잇섯다 그러나 平和와繁榮의時代의出現은 日本에依하야 無慘하게도 破壞되엿다 彼等은 支那의 國民的統一과 經濟建設工作의 進步에對하야 危懼의念으로써 觀望하고 數十年에亘하야 支那의國家的基礎를 破壞하기爲하야 모든努力을傾到하고 彼等은 世界의對支信用을 破壞하기에 奔走하야支那에 多大한權益을가진 諸大國을侮蔑하야 支那는 企業形態로서 將來性이업서 放棄하는것만 갓지못하다고 宣傳하려하고 또 彼等은 支那問題에 對하야 唯一한 仲介人으로 自任하고 國際的으로 默認을어드려하야 努力하엿다 또 彼等은 支那에 確乎한 建設을 하기는 極히 容易하다는 생각에서 自進하야 또 大陸帝國의建設에 邁進하려한것이다

(寫眞은 宋美齡)

全面的敗戰으로
國內騷擾益頻繁

【某處諸情報】北支戰線의 全面的敗退 이어서 上海 南京의陷落은 如何히 蔣介石이 長期抗戰을 豪語한다도 벌서 支那軍의 徹底的慘敗는 숨길수업스며 그러고도 이慘敗의結果는國民黨의 有能、積極的分子의喪失 日本軍 더욱이 優良裝備의 軍隊와 싸우기에 脅威와 恐怖를 품고, 이結果 第一線部隊는 勿論 後續部隊에 이르기까지 公然한 騷擾가 勃發하엿다 即

一、蘇州及 無錫地方에잇는 張學良軍隊內部에는 給與와 指揮의 不滿足으로 叛亂이起하고 이것이 導火線이되야 戰線에잇는 一般外人에 對한排擊騷擾로되엿다
一、張學良軍隊가 揚子江北岸에 退却한뒤 또다시反亂을 이르켜서 三大隊가武裝解除되엿다
一、湖南省에 이러난 反亂으로武力衝突이 시작하야 二個大隊가 武裝解除되여서 鎭壓되엿는데 이것은 湖南省主席 何健更迭에伴한烽火이엿다
一、韓復榘의 一個師와 廣西師와의間에武力衝突이勃發하엿다
一、十二月初부터 漢口는 戰傷患者及敗退兵으로 充滿하야 人心은 極度로不安에 陷하야 주死街로化하엿다
一、十二月八日부터 十一日까지 사이에 武昌에서는 大學生이 主로되야 抗日의不徹底를政府에 詰問하야 打倒南京의『슬로간』을걸고서 共產主義行進을 하엿다
一、長沙에 이러난 動亂의結果 一般民衆은 勿論 軍隊에 이르기까지 神經過敏으로되야 疑惑과 猜忌心에 充滿한 [illegible]은 巷間을 彷徨하고 이動亂을 鎭壓코저한 警察官十數名이 殺戮된뒤의 恐怖狀態는 筆舌로 나타낼수도업다

以上外에도 各所에 騷亂이 勃發하야 人心의動搖 經濟界의不安도 또한深刻한데 不拘하고 長期抗日을 豪語하는蔣介石은 去十一月 十九歲로부터 三十八歲까지의 男子는 모두兵役의 義務가잇다고 公表하야 百四十萬의 兵士가 새로 徵集되엿다 그러나此等 新徵集兵士는 近代戰에關해서는何等의 訓練도업고 甚한者는指揮命令에關한書類조차도읽지못하는者도잇는狀態이다 그우에 敗退의狀況을보고 入隊初에 恐怖를느껴서 此等의軍隊에서도 벌서부터 打倒蔣介石의소리가 노파지고잇다

支那方面旅行의
旅證發行二千三百二十一件
總督府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一日午前十一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南總督臨席下에 開催하고 左와如히 各局長所管事務의報告에對한 訓話가잇슨後 同十二時閉會하엿다

山田遞信局長=第一回事變公債窓口賣出은 今月中旬頃부터 開始될터이다 그리고 簡易保險加入者中 戰死者에對하야 直時保險金을 支拂하는것은 勿論이오 其外에 祭物과鄭重한弔慰를 表하는 書面도보낸다 昨年中 簡易保險은 三十三萬件으로 前年에 比하면 五割의增加이어서 簡易保險事業開始以來最高記錄이다

三橋警務局長=北支、上海方面渡航旅行者는 從來警務의證明을 要하는同時에 可及的業務其他家庭用務以外는 自發的中止를希望하야왓스나 今後此自發的旅行中止의件은 停止하엿는데 上海方面旅行者證明書發行件數는 二千三百二十一件中 北支가 二千二百七人中內地人이 五百三十六人朝鮮人이 一千六百七十一人이오 上海는二百十四人中內地人이 十六人朝鮮人이九十八人인데 이것을 業種別關係로보면北支方面은 商業關係가五百二十八人 女給酌婦等이 二百五十七人이오 上海方面은 商業關係가十六人 女給酌婦가三十五人이엇다

鈴川專賣局長=煙草連絡船의客用煙草는 價格을 値上하나 朝鮮煙草檢査는 廢止하고 內地製造煙草는 値上하지안키로되엿다

財務局長代理村山稅務課長=北支事變에關한 特別稅를徵收하기로되엿다

學務局長代理金社會敎育課長=敎育令改正案은 去二十七日法制局에 廻附되어 極히順調로審議進行中인데 今月上旬에는 樞密院에 御諮詢하게될것이다 第二回國民精神總動員强調週間에對한것은 目下着着準備進行中이다

殖產局長代理石田鑛山課長=產金資金融資申込額은 現在約九百萬圓에 達하얏다

最終으로 南總督=時局對策에 就하야는 去月八日 臨時局長會議에서 主唱한 余의趣旨에 基한 各位의研究에對하야 前回定例局長會議에서 促進을 求하엿스며 去二十八日 臨時局長會議에서도 又復 그研究促進을 求하엿거니와 今日다시協議하야 그結果를 事務의 最高統率者이며 또委員長이될 大野政務總監의 意見을 듯고저 今日井坂文書課長을 東上시키기로하엿다 本件은 普通事務처럼 取扱하지 말고 各位가自進하야 部下를 指導督勵하야 迅速한進行을 圖하도록 特히留意할것이다

蘇聯官憲곳까지
小包引受를拒絕

【哈爾濱電話同盟】滿洲國官憲의蘇聯領事館抑留事件에 對한 報復手段으로 去二十七日에 蘇聯運輸人民委員部에서 突然發表한 日蘇小包郵便物 交換停止通告後 最初의 郵便船으로 二十九日 浦鹽에 入港한 歐亞連絡船西伯利亞丸은 敦賀局發送 蘇聯及 西伯利亞經由 歐洲各地로 向하는 小包郵便物 八十三個와 通常郵便物行囊三個의 領受에對하야 在浦鹽蘇聯郵便部員과의 間에 再三交涉을 繼續하엿스나 蘇聯側은 頑强하게도三十一日 午前八時에 同船出帆時刻에 이르러도 小包八十三個의 領受를 不應하고 通常郵便行囊만을 겨우 領受하기로 應諾하고 도日本으로向하는 郵便物은 通常이나 小包는 다引渡를 完了하엿다고 同夜十一時에 敦賀局에 入電이 잇섯다 領受를拒絕한 小包八十三個는不得已 同船으로 敦賀로 가지고 도라오게되엿다

八面鋒

今年에는 私立中等學校도入學試驗日字를 劃一化한다고。

◇이리되면 한사람이 두군대 세군대 試驗을 機會를 일흐니 學校當局者로는 便할지모르나 志願者에게는 一大打擊。

◇한번 失手는 兵家의 常事라 한번 落第되엇다가 두번째 세번째에 入學되는 境遇가 許多。

◇한번 落第되면 다시 一年을 묵으란 말은 너무도 苛酷。日本內地서도 高等學校試驗日字를 두냥으로 定한것은 두번 受驗할 機會를 주자이아닌가。

◇金剛山 開發案 마침내 實現코저 調査 着手。

◇항크스텐이란 鑛物을 파내고저함이라 하거니와 天下絕勝도 鑛石이 때는 問題되지안는가。

◇聖山이나 靈嶂이나하는말은 別問題로 하고라도 爆藥 소리、곡괭이소리、호리는 둘러지울 穴, 생각만해도 嫌症。

◇勝景을 傷치 안는 程度에서 鑛物을 採掘하여 如何。

文學士 金允經先生著
世界的大著作
朝鮮文字及語學史 忽再版出來
菊版九포인트 八百五十餘頁 定價七圓 郵料三十四錢

朝鮮文字及語學史

本書의 內容

第一篇 緒論
第二篇 本論
[illegible]
第一回 國文의淵源
第二回 國文、字體及發音의沿革
[illegible]
其他學者
[illegible]

本書의內容梗槪

本書는 有史以前부터 有史以後今日까지의 朝鮮語와 朝鮮文字에關한 由來 變遷發達等의 全貌를如實히 記錄解說闡明한 總鳥瞰圖요 總臺帳인同時에 朝鮮語文의百科全書이다

第一編은 總論으로 朝鮮語의本領을밝히기爲하여 世界古今數百種族의言語를 系統的으로 分類列擧하여 朝鮮語의 語族的領分을 論謂하고 다시 全世界의各樣 構造로된모든 言語를形態的으로 分類比較하여 朝鮮語의語形上領分을 論謂하고 그다음에朝鮮語의 範圍를 밝히거爲하여古今의 모든文獻과 考證을들어朝鮮語의 地理的領域과 歷史的實蹟을記述하고 끝으로 世界文字의發生과種類를 考究하여 朝鮮文字의本質을 밝히엇다

第二編은 本論으로 上古時代로부터 訓民正音以前時代까지의朝鮮固有의 諸種文字를 時代順으로 一一이 說明한다음에 訓民正音의制作된 由來、起源、考案等에對한 古今東西 여러學者들의 硏究學說을 類聚比較하여 訓民正音의 本質과 價値를 闡明하고 訓民正音 以後今日까지의 朝鮮語及 朝鮮文字의 各樣變遷과各種經路를 詳細明確하게 記述하는同時에 古今國內國外의 數多한 學者들의 學說과 文獻들을 或은全文 或은要旨或은書名 或은雜誌新聞等에 公表된論文의題號까지 라도 朝鮮語文硏究에關한것이면 一一이 收集記載하여 朝鮮語文에는 어떠한問題에든지 直接或은 間接으로解決의鍵을줄수잇게 編纂된寶典이다

本書는 初版發行과 同時에東亞 朝鮮 每申各新聞의記事에依하여 어떠滿天下에 널리紹介되엿을뿐아니라 初版本全部가어미 國內國外의 世界的各文化機關에 絕對의歡迎으로 頒行되어本書의眞價는 忽然國際的으로言의엄이어젓다

어에 初版部數의不足을크게느께어 急遽再版을 發行하게되엿다 그러나 本書는 事情上無限한部數로 發行하기어려운 關係上今番再版도 部數가 만지못하오니 要求되거前에 此機를勿失하고至急先注文하시기를바라는바이다

發行所 京城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
總販賣所 京城府寬勳町一二三 三文社書店 振替京城九七五六番

人民戰線派 大學敎授、講師中心 第二次大檢擧斷行

二月一日早曉全國一齊히！

【東京電話同盟】 작년십이월십오일에 소위인민전선파(人民戰線派)의 대검거에 계속하야 내무성보국에서는 다시 동계통의 잔당 저적일소를 기하려고 신중히 내탐중하든바 이월일일새벽에 동경 대판 강산을위시하야 전국에걸처 삼십여명에 달하는 제이차 검거를 단행하얏다 경시청에서는 삼십일일밤이래 국지특고부장(菊池特高部長)이하 관계각과원이 대거하야 일일오전 륙시에 일제히 관하각서의 응원하에 삼국구세송 동파의 리론적 지도입장에잇든 유택광사(有澤廣巳)이하 동대조교수 협촌의태랑(脇村義太郎) 법정대학교수 미농부량길(美濃部亮吉) 동남근이(南謹二) 사대당 도변종장 등 동파의 리론적 지도입장에잇든 관공사립대학교수、강사 십여명을 검거하야 각서에 류치하고 취조를하고잇다 (사진은 유택씨 하는도변씨)

被檢者三十一名

금번의피검거자수는 오전십시내무성으로부터 발표한것에 의하면 경시청관하삼십명 천엽(千葉)일명 대판(大阪)이명 경도(京都)일명 광도(廣島)이명 강산(岡山)이명 암수(岩手)일명 내량(奈良)일명 궁성(宮城)팔명으로 이들피검자는 각각치안유지법제일조의의에 속한자들이다

共産主義運動에 理論的指導者 淸水保安課長 談

이번검거된 사람들은 작년에검거한 인민전선파와 밀접한관계를가지고잇든사람들이다 이들은 그전부터 한『그루-프』를 조직하야 공산주의의운동의 기본적 지도입장에잇섯슬뿐아니라 각반 전운동에도 한목보든의가 농후하다 이『그루-프』에서는한자가중심이되여 잇는데유택(有澤) 아부(阿部)등이라든가 전번에검거한대삼의태랑(大森義太郎)이중심이되여 신전다로정(神田淡路町)동경지파의사회관에 사무소를두고 매주 정기적으로 회합하야 표면은 공동연구라고하나 우리나라의 론농파 공산주의의지도를 하고잇섯다 종래 구론농파와 대립하얏든 사람들이 론농공산주의의운동을 하고잇섯다는것이 판명되엿슴으로 당국으로서는 단호한 처치를 한것이다

東北帝大 敎授一名 議員等檢擧

【仙臺電話同盟】 궁성현 특고과(宮城縣特高課)에서는 일일오전여섯시에 선대경찰서(仙臺署)기타 서원을 총동원하야 인민전선파(人民戰線派)의 일제검거를 하엿는데 검거된사람은 동북제국대학(東北帝大)법문학부조교수 한명과 선대시회의원일명등 여명명이엇다

過飲急死

삼십일일오후 열한시 오십분쯤 부내본정(本町) 오정목 상반식당(常盤食堂)에서 술을먹고잇든 손님이 갑작히 고민을시작하얏슴으로 부근송하(松下)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하라고하얏스나 곳절명하고말엇다는데 이손님은 돈암정(敦岩町)에서 양、거장을경영하는 정도종(城東…)(○○)으로 급사한것은 술이 지나처서 심장마비를 이르킨때문이라고한다

賭博해돈일코 虛僞强盜告發

【押橋】 구정일밤하고 넉넉지못한행상(行商)인으로 늙은부모와 어린처자、형제에 설빔을하고자하나 얼마아니되는행상자금으로 할수업서 도박을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도박을하다가 따기는고사하고 얼마아니되는장사밋천까지 떨니고나서 집에도 못드러가고 가진돈을다일코 면목이업서 시장(市場)으로부터 도라오는도중에 삼인조강도에게 빼앗기엇다고 당국경찰에 고발한자가잇다 그는충남홍성군홍주면고암리(洪城郡洪州面古岩里)에 주소를둔 리원근(李元根)으로 지난이십사일에 예산시장(禮山市場)으로부터 도라가는도중에 강도가 나타나 돈을내지아니하면 주기겟다는 위협을밧고 일금백원오십전을 강탈당하엿다 하므로이소식을 접한 홍성、예산양경찰서에서는 시절이시절인만큼 대경실색하야 범인체포에 노력을하엿스나 증거가 업슴으로 고발인 리원근을 추궁한결과 사건전부가 허위인것이판명되여 그를류치하엿다한다

將兵慰問用 便箋紙配布

체신국에서는 북지나및남지나 방면에 분전하고잇는 황군장병의 위문용으로 봉함엽서(封緘葉書) 모양과가튼 그림그린편지지를만드러서 요지음에 전조선각관공서 학교회사등방면에 기증하기로되엿다한다

精神作興週間

【釜山】 경남도에서는 이월십일일 기원절(紀元節)부터 일주일간을 제이회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으로결정하고 각종행사를하야 국민정신작흥운동을 이르키고자 방금준비중이라한다

街路樹에衝突 自動車顚覆

今曉丹陽郡下慘事 乘客七名死傷

【丹陽着電】 일일오전세시 충북자동차주식회사(忠北自動車株式會社)운전수 리범생(李範生)이가 승합자동차를운전하고 충주(忠州)를떠나 충청북도단양군 단양면북상리(忠北丹陽郡丹陽面北上里)아플 질주하든중 가로수(街路樹)와 충돌전복되어서 승객중일명즉사 중상삼명 경상삼명 합계칠명의 사상자를내엇는데 사상자의성명과 참사발생의원인은 소관단양경찰서에서방금조사중이다

東京硏學會에서 硏究發表會開催

【東京】 재동경 조선유학생유지로써 조직된 동경연학회(東京硏學會)에서는 제일회 연구발표회를 지난 일월이십팔일오후부터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하엿는데 래청자가만허 대성황을이루고 네시에폐회하엿다 이날연사와 연제는

一、近代法律思想에對한一考察 姜大成

一、韻律에對한考察 李陽鄕

一、正當防衛에對한諸學說의硏究 金昇燮

東海岸에서 久壽丸沈沒 積載量의超過로

【大邱】 이십구일 오후일곱시쯤 동해안연안에 출어중(出漁中)이든 영일군구룡포읍(迎日郡九龍浦邑) 구수환(久壽丸)은 도라오는도중에 강구항(江口港)부근의 해상에서 침몰되여 승조원이실종되엿다는데 원인은 적재량의초과로 손해는 약삼천오백원에달한다고한다

憲法發布記念으로 政府、恩赦奏請?

近衛首相、宮中方面과頻繁히協議連絡

恩赦의種類는方今考究中

【東京電話同盟】 오는이월십일일 헌법발포오십년기념(憲法發布五十年記念)을 마지함에당하야 은사대조환발(恩赦大詔渙發)의 의(議)를 주청하면 어떠냐는의론이 지난번부터 정부내에일어낫섯는데 근위수상은 관계방면의의향을 청취하는동시에 지난이십육일 궁중에서 탕천(湯淺)내부와 회견하고 다시이십구일에는 궁중으로 송평(松平)궁상을 방문하고 중요협의를 한결과 의견의 일치를 본모양이다 수상은 이결과에따라 삼십일일 중의원의 의사종료를 기다려 오후여섯시이십분 원내대신실에 염야(鹽野)법상을 초치하고 은사주청의 범위와 금후의수속에 대하야 사법당국의 의향을 상세히 청취한바잇섯는데 근위수상으로서는 아프로라도 일층 신중을 기하야 은사주청에대하야 궁중방면과 협의하야 모든준비를진척시키려는 모양이다 소화성대에 드러가 은사가 황공하옵게도 대조환발을 본것은 소화삼년의 어대전(御大典)과 소화구년의 황태자전하어강탄의 두번이잇섯는데 헌법발포 오십년기념이라는것은 물론 새로운 례를 열은것이나 정부로서는 광고의대업에 매진하고잇는 지나사변의 진전도상에 잇서서 헌정사상의 축전을 마지하는곳에 은사주청의 의의가 잇는것이라하야 금후의 준비는 정부부내와의 준비를 가추는대로 은사주청에 어내의(御內意)를 밧들어 다시 각의에 최후안을 결의한다음 상주어재가를 밧들어 이월십일일 기원의가절을 기하야 공포실시할것으로 배찰된다 은사의 종류가 감형령(減刑令)과 복권령(復權令)의 두종류가될지 더나아가 대사를 추천하게될는지는 아프로의 연구에 의하야 결정될것으로 판측된다

恩赦種類

【東京電話同盟】 정부는 방금은사령에관하야 고구중인데 은사에는 다음의네종류 즉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이잇서 그종류는다음과갓다

▲大赦

가 刑의言渡를바든者에 對하야는 그言渡는 將來에잇서서 效力을失함

나 아직刑의 言渡를 밧지아니한者에 對하야는 그公訴權은 消滅함

▲特赦

가 特殊刑의言渡를 바든特定한者에對하야 이를行함

나 但 特別한事情이잇는 境遇에는 將來에잇서서 그效力을失케할수가잇슴

▲減刑

가、刑의 言渡를바든 者에對하야는 勅令으로써 罪 或은刑의種類를 定하야 이를行함도 잇는 刑의言渡를바든 特定한者에對하야는 이를行함

나、年齡에依하야 刑의 言渡를밧지아니한 境遇에는 別項의規定에잇는 境遇를 除하고將來에잇서서 刑을 變更함

다、特定한者에對한 減刑의 境遇는 刑의執行을 輕減함 但 特定한 事情이 잇는境遇에는 刑의 變更을 할수는업슴

▲復權

가、復權은 將來에잇서서 資格을 回復함 또 特定한資格에 對하야도 이를行할수잇슴

이번엔初等校에서 傷害致死事件發生

府內輔仁普通學校에不祥事

死因判定코저屍體解剖키로

이십구일재이고보에서 한반동무끼리 사소한말다툼을하다가 칼브핀으로하야 중상을입혀 학원을 피로물드린 불상사가 아직기억에도사라지기전에 이번보통학교에서 가든사건이 이러나 어린죽엄까지내게되여 학부형을 전율케하는동시에 이런일이 거듭이러나는데대하야 일반사회의이상한관심을끌게하고잇다 삼십일일오후세시반쯤되여 부내당주정(唐珠町)벽동일사번지 한명삼(韓明三)씨의외아들 수창정(壽昌町)보인보통학교(輔仁普校) 사년생 한경호(韓慶浩)(一二)군이 사흘전부터 병석에 누어알다가 필경은 죽엇는데 병석에눕기이전인 이십칠일오전여섯시쯤되여 학교운동장에서 오년생인 돈암정(敦岩町)사백사십이번지의 이호 송갑헌(宋甲憲)씨의맛아들 송제(宋濟)(一三)에게 맞엇다고 몸구리를 채인사실이 판명되엿는데 종로서에서 가해자를 다려다취조한 결과와 학교당국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날은 대단추운날로 생도들은 거이다교실에서 놀고잇섯스나 가해자와피해자의 몇명의 생도가 운동장에나가 유희일우는 작란을하다가 싸홈이되여 가해자는 어름판에다 피해자를넘어트리고 함부로 발길질을한것이라는데 피해자는그날파고 이튼날도여전히 학교에를왓스나 이십구일부터 병석에 눕기시작하야 사흘만인 삼십일일 죽은것으로 그사인(死因)이 판연치못하야 그것이 발길로채인것인가를 단정하기위하야 종로서에서는 일일피해자의 시체를 대학병원에서 해부하기로되엿스므로 적확한원인은 그결과에 달니게되엿다

未安千萬한일 校長朴榮根氏談

교장박영근(朴榮根)씨는 이사건에대하야 다음과가티말한다 학교로서는 죽은생도가 집에돌아간 그런사실을 말하얏스면 로 조사하야 비로소 이실을 알앗습니다 더 전에 그런사실을 말하얏스면 일에상을 알려주엇슬것입니다 그이튼날까지 평소와조금도달지안케 학교에왓다갓스므로 자연그싸홈이 죽은원인인지 알수업는일이옵시다마는 좌우간 죽은것은 나로서는 미안만이며 가엽기짝이업습니다

全然別個事件

【大田支局電話】 대전(大田)경찰서에서 취조중인 정사미수자중 촌생(中村俊生)은 년령이 삼십세로 본정서에서 조회한청년과는차가크며 그우에 인상이틀릴뿐만아니라 소지금이 십일원밧게업다 경성(京城)진경우와보영루(寶榮樓)의창기와 정사하려고한것은 다르기틀림이 잇는것갓다고하며 가검사(假檢事)사건과는 전연관계가업다는것이판명되엿다

迷宮！迷宮！迷宮！

假檢事事件搜查……新局面打開에

속보—일일까지 임이닷새동안 부청서를 옴게한 가검사(假檢事)는 파면어되든지나 조간에 기보한바와가티 대전(大田)에서 정사를도모한 청년이 동서의 예상과는 전연배치되는 문제외의 인물이란것이 판명되자 지금까지 극도로 긴장하얏든수사대들은 크게락담을하얏다는데 일일부터는 전연새방면으로 활동을 개시하얏다 주범인은 그전부터 경성부내에거주하든자가안이니 밀엽고려관가튼데 나타날것이라는것과 범죄자의 조바심한 마음으로 반다시유흥장소에나올것이라는것 이상두가지생각으로 형사대를부내각처에 배치하고잇는데 이것은 범인이 경성부내에 아직잠복하야잇다는 전제하에 실시하고잇든 수사방침으로 사건은점차 미궁으로 드러가고잇다한다

校洞公普小火

일일 오전열시오십분쯤해서 부내경운정(慶雲町)교동공립보통학교(校洞)이층 이학년일조교실 벽판장에서 연기가나기시작하는것을 공부하고잇든 생도가발견하고 소동이되여 곳꺼젓는데 소관종로서에서 원인을조사한바에 의하면 스팀가마에 불을넘우때여 연통이 넘우달어서 부튼것으로 판명되엿다

淸州廣惠院竹山間 電話通話區域編入

체신국에서는 종래에 전화통화구역밧기엿든 충북청주(淸州)와 광혜원(廣惠院)및 죽산(竹山)사이를 통화구역으로 편입하고 오는 륙일부터 통화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現地治安回復으로 北支進出制限緩和

사변이후 북지방면으로 진출하려는사람이 극히만헛스나 치안이 아직 안정되지못하엿든데대하야 일정한목표가 업시 북지로건너가는것도 만흘것을념려하야 북지의군기관과교섭한 결과 당국에서는 필요잇는대로 북지로 들어오는사람에 대해서는 제한하여오든바 이에대한 당국의 처치는 북지려행자에는 현주지경찰서의 증명서를 발부키로되엿다 극히엄정주의로하야 사업표가 확실할것또는 반드시 가여야할필요가 잇는것에한하야 증명서를 발부하야왓다 그런데 최근 북지방면은 치안태도 회복되며 여러가지방면으로 사업에착수키에도 업만큼 조케되고 또 그외의려행자도 속속드러와서 관계업슬만큼 되엿슴으로 외무성당국에서는북지현지의 보고에의하야 금후북지진출의 제한을 완화하여도조타는 지시가잇서 총독부에서도 이뜻에의하야 금후북지진출을 완화하기로 되엿고 망하는자에게는 아주 무럭하고 드러가서 생활난으로 류리할경도의 것만아니면 모두 증명서를 발부하기로되엿다 지금까지 조선내에서 증명서를 발부한수효를보면 작년구월부터 시월까지는 이천백칠십명중 내지인이 오백사십명이고 그여는 모두 조선인인데 상인이 이백오십칠명 녀급 작부가 주되는것이다 그후도 매월북지로 가는 사람은 그수효도 만이 증가될모양이다 도상해(上海)방면의 진출에도그 제한을 완화케 되엿는데 그간 이방면의 려행자는 구월과시월중 백이십사명에 조선인이구십팔명뿐이엇다

報國江原號 來六日獻納式擧行

강원도민의 적성에의하야 헌납된 해군기보국강원호(報國江原號)는 오는륙일오전십시부터 강릉(江陵)비행장에서 헌납식을 거행할터인데 해군대신대리로 유지(有地)진해요항부사령관이 열석하리라한다

버루돌한개로 大詐欺劇演出

一黨今日第一回公判

벼루돌한개를 미끼로만원이나 사기한 부내관철정(貫鐵町) 일백팔십삼번지 홍재영(洪在榮)(三〇)사간정(司諫町)팔십일번지 우상연(禹象鉉)(三一)안국정(安國町)팔십오번지 윤의헌(尹義憲)(三一)광희정(光熙町)이정목 일백삼십이번지 조시언(趙時彦)(三一)등네명에 관한 사기등 피고사건공판은 일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수심 김(金)검사관여 미테열리엿다 피고 홍재영은 그의시골경북고령군우곡면도진동(高靈郡牛谷面桃津洞)에 룡연(龍硯)(시가일이백원)이라는 와사배년가량된 조선제벼루돌한개가 전하여내려오는것을 기회로 이것을천년전 당(唐)나라시대에만든것으로 대정십년사내(寺內)총독시대에 오십만원가치가잇는것이라는 감정을바덧다고 거짓말하고 소화구년사월께부터 전기우상연등 세명과함께 부내삼청정(三淸町)일백삼십구번지 리성순(李聖順)을 비롯하야 명치정(明治町)궁내원팔(宮內源八)등 수십명으로부터 면배원식 이벼루가빗사게팔리면 갑는다하고 모두만원이상의 돈을 사기소비하엿스며 이외에 유의헌은 종로이정목 심창호(沈昌浩)(假名)를 부하 심(沈)모의족내모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시켜준다속히고 운동자금을 편취한것인데 그들은 대개재판의심문에대하야 사실을 시인하엿다 홍재영으로부터 심리를개시하야 네명에대한 사실심문만 대개마추고 오는사일에 다시공판을속행하기로한후 오후한시반에 폐정하엿다

「아버지의姓이 틀렷소！」

죽은자기 아버지의 성(姓)이 틀렷스니 고치게하여달라고 검사정(檢事正)을상대로 신분관계확인청구(身分關係確認請求)소송을 제기한 아들이잇다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삼수리(水原郡半月面三樹里)일백오십이번지 고영찬(高永昌)은 일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을 상대로 그의아버지 고 고영현(高永賢)은 그의 조부박상언(朴相彦)과 조모 리사선(李思善)과의 사이에 난 장남 박영현(朴永賢)인것을 확인하여달라는 소송을제기하엿는데 소장의내용을 보면 원고는 대정오년오월십이일에그의아버지 고 고영현과 그의어머니 김순남(金順男)의 사이에 난 장사이고 원고의아버지고영현은 원고의조부박상언과 조모 리사선과 사이에 난장자인데 원고의 아버지영현이 네살먹엇을때에 원고의조부 박상언이 병으로죽자 원고의조모 리사선은영현을데리고 시흥군서이면 이동리 고만필(始興郡西二面二洞里高萬必)에게로 재가를하엿다 그런데 고만필에게 마침 아들이업스므로 민적을 실시할때에 박상언의 아들박영현을 고만필과리사선과의 사이에난것처럼 신고하야 박영현은 호적상 고(高)에가 행세를 하게되엿다 이에따라 원고도고가행세를 하는데실상은 전기한바와가티박가인것이 분명하니 호적상의성을박가로고치도록하여달라는것이다

變心處女를亂刺코 職工이面刀自殺

新義州彌勒洞에悲戀慘劇！

【新義州支局電話】 생명가티사랑하든처녀에게 배반을당한 청년직공이 고량주(高粱酒)의 공장한냄새가 집집마다풍기고잇는 음력정월초하로날밤 면도로 처녀를 난자하야 빈사의중상을입히고 자기도 그칼로 자기의목을찔러 피를흘리는 사건이 신의주에 발생하얏다—삼십일일 오후일곱시사십분쯤 신의주부미륵동(彌勒洞)일백이십삼번지 부내모공장직공 차도신(車道信)(二〇)은 그날마침 집에차저온 가튼동리 최신옥(崔申玉)(一九)이란 처녀를 면도로마구난자하야 피를토보자 그칼로 자기의목을찔러 자살하고말엇다한다 차도신이와 이처녀는 약일년전부터 서로사랑을 속삭여왓스며 수개월전 결혼까지하겟다는 맹서를하얏스나 약일개월전 그처녀의 마음이 갑작이 변하야딴남자와 약혼을하고마랏스므로 그의 사랑을 영원히 독점하라는 차는 원한의칼날을 휘두른것이라한다 또한 최신옥은 현재부근천산의원(靑山醫院)에 입원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聖戰의持久와 國民의覺悟"

全朝鮮에配付

총독부문서과에서는 이번에새로『성전의지구와 국민의각오』라고 제목한 소책자 십만부를 발행하야 각도 군수 구장 전조선각읍면 주재소등각방면에 반포하기로되엿다

恩給과秋收를 銃後獻金에

愛國美談二話

▲인천궁정(仁川宮町)가등합자회사(加藤合資會社)농장소작인삼백팔십여명으로 조직한 농영회(農榮會)에서는 지도원 최창규(崔昌奎)군을 위시하야 회원일동이 시국인식과 총후봉공에 노력하야 오든중 작년추수는 예상이상의 호성적으로 평년작보다 이할이상의 증수이엇스므로 협의한결과 추수중에서 벼(石)이천팔백구십육근을 출하거야 방공비(防空費)로 헌납하얏다

▲수원읍장(水原邑長) 매원순웅(梅原順雄)씨의 은급(恩給)수령자 칠십명은 이비상시국에 처하야 은급을 밧는것은 미안하다하야 각자가은급을 거출하야 국방헌금으로 수원군사후원련맹에 헌납하얏다

朝鮮敎育令改正案 今週中審議終了

三月初에發表豫定

방금 동경(東京)체재중인 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으로부터 삼십일일 총독부에 드러온 공보에의하면 오는사월일일부터 실시할예정인 조선교육령 개정안은 방금 법제국(法制局)에서 극히 순조로 심의되고잇는중인데 금주중 법제국의 심의는 끗나고 오는 십일경에는 추밀원(樞密院)에 어자순(御諮詢)의 수속을 취할터이므로 느저도 이달중으로는 심의와 어자순 즉 법령실시할 수속절차는 전부 끗나서 오는삼월초에는 발표할예정이다

그어미차저주

모성애를 몰각한 무자비한어머니를 차저달나는 눈물겨운소사원한통이 룡산서에 드러왓다

본적을 포천군 내촌면 직목리(抱川郡內村面直木里)이백팔십구번지에두고 현재 부내 신교정(新橋町)일번지 경성맹아학교(京城盲啞學校)석생 김(金)씨의집에와서 안잠자기로잇는 김옥희(金玉姬)(二〇)란 녀자는 일월이십이일 오전열시경에 일수일전에 나흔 갓난어린애를둔채 집을나간후 지금까지 도라오지안흠으로 어린애는 젓을어머지못하야기사지경에 이르럿다한다 아마도 그전부터 정부가잇서 가버리운것 사랑외도 피행하엿슴으로 보이는데 어린애의 정애라고 우는정상은 참아보지못하겟다한다 남편 리천만(李千萬)은 그래도 무정한 안해를속히 차저달나고 눈물겨운 수사원을 이일일 룡산서에 제출하여왓다

入學願書에添付할 戶籍謄抄本區別調査表

경성부내에잇는 각전문학교、중등학교의 입학원서에 첨부할 호적등본、초본의구별을 경성부호적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가트다

▲大學豫科 謄本 ▲京城醫專 同 ▲世醫專 同 ▲齒科醫專 抄本 ▲藥學專門 入學許可後에抄本을提出 ▲高等工業 謄本 ▲高等商業 同 ▲法學專門 同 ▲佛敎專門 抄本 ▲普成專門 同 ▲延禧專門 同 ▲梨花女 同 ▲女子醫專 同 ▲京城中學 入學許可後에謄本을提出 ▲龍山中學 同 ▲城東中學 同 ▲第一高普 抄本 ▲第二高普 同 ▲養正高普 入學許可後에 謄本을提出 ▲培材高普 同 ▲普成高普 同 ▲徽文高普 同 ▲中央高普 同 ▲第一高女 謄本 ▲第二高女 同 ▲淑明女高 抄本 但抹消안된곳部分全部記載 ▲淑明女高 抄本 ▲梨花女高 同 ▲培花女高 入學許可後謄本을提出 ▲同德女高 抄本 但抹消안된部分全部記載 ▲京城商業 同 ▲京城女高 謄本 ▲善隣商業 入學許可後의抄本을提出 (備考)但生存者全部記載分 ▲大東商業 入學許可後謄本을提出 ▲女子商業 抄本 但抹消안된部分全部記載 ▲協成實業 謄本 ▲京城農業 抄本 ▲中東學校 入學許可後謄本을提出 ▲徽文學校 抄本 ▲京城保育 抄本 但抹消안된部分全部記載 ▲中央保育 謄本 ▲東洋女校 抄本 ▲昭和工科 謄本 ▲高等商業 抄本 ▲公立工業 謄本 ▲京城工業 同

兩水里郵便所 來六日부터開所

체신국에서는 경기도양평군양서면양수리(楊平郡楊西面兩水里)에 우편소를 신설하기로하고 준비중이든바 드디어 오는 륙일부터 개소하고 우편사무를 취급하기로되엿다한다

스포-츠欄

滿洲氷上代表 京城驛通過歸滿

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와 明治神宮氷上大會에 出場하얏든 滿洲代表 朴潤外 男女選手는 木谷監督引率下에 一日午後三時三十五分 京城驛通過 歸滿하엿다 一行中에는 全日本女子氷上界의覇者 江島八重子孃도 잇섯다

鐵原서 氷上大會開催

【鐵原】 本報鐵原支局主催의 金剛氷上大會는 今年으로第三回를마지하야 오는二月六日 鐵原에서 開催할터인바 벌써부터各地方都市로 多數의申込이 殺到하는中이라는데 時利京城서도數多申込하야벌써부터 盛況을豫測한다고한다

運動界人事・集會

▲石鎭慶氏(中央基督靑年會體育部幹事)三十日 廣州郡東部里自宅에서逝去

▲安重顯君(明大氷上選手)入京 來社

▲李仁源君(平壤氷上選手)同上

天氣豫報

概況 蒙古의高氣壓은 優勢로되여 七八二粍를보이고 그로부터 氣壓은 南朝鮮을거처本州方面에 漸漸야러지고 北海道西岸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滿洲、朝鮮은개이고 日本內地는 흐리고 日本海方面은 降雪이잇고 琉球諸島는 北東의바람이 조금 强하고 비가오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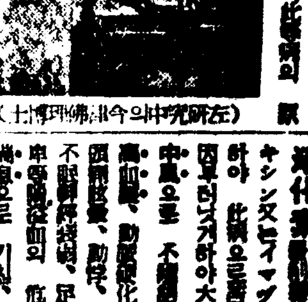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北西의바람이 불고 개엿다 차어지며 京畿道全部도 以上과가트다

昨日最高 一度五

同 最低 零下七度八

今朝最低零下 十一度二

今日正午 零下六度四



喘息、神經痛과 中風・高血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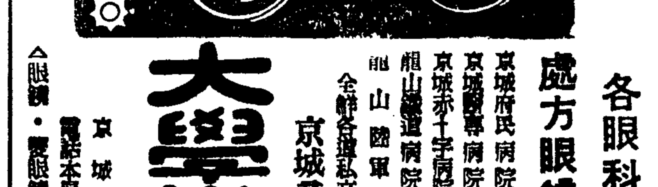
血의「淸潔을업새고」原因부터治療하면낫는다

不治아니다

(左硏究中의今村博士)

今津化學硏究所

淨化素



大學堂眼鏡店

京城帝國大學御用

全鮮各道私立病院眼科御指定

龍山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京城赤十字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府民病院眼科 荒川眼科醫院 仁川岩永醫院 金井眼科醫院 江頭眼科醫院

各眼科病院 處方眼鏡責任調製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三七五振京一二一九

◇眼鏡・義眼總カタログ送呈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改備 스팀設備

京城府樂園町一三五

醫學博士 朴昌薰

電光②一四五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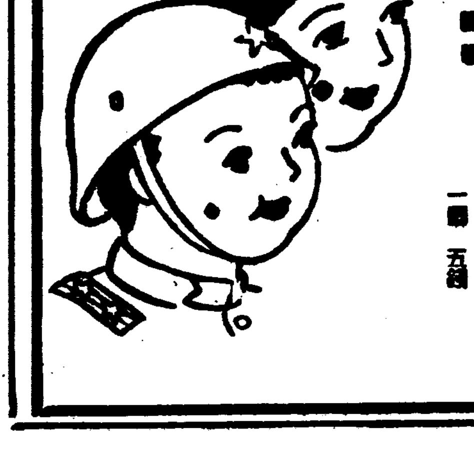
包莖手術每日施行

京城貫鐵町二八(鍾閣後)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電話光三八六番

醫師 李圭曄



元氣나고 맛잇는

マラソンモ

TRADE MARK

地球 鷹印의

各種 비스켓도

미루꾸 캬라멜

진동캬라멜

마ー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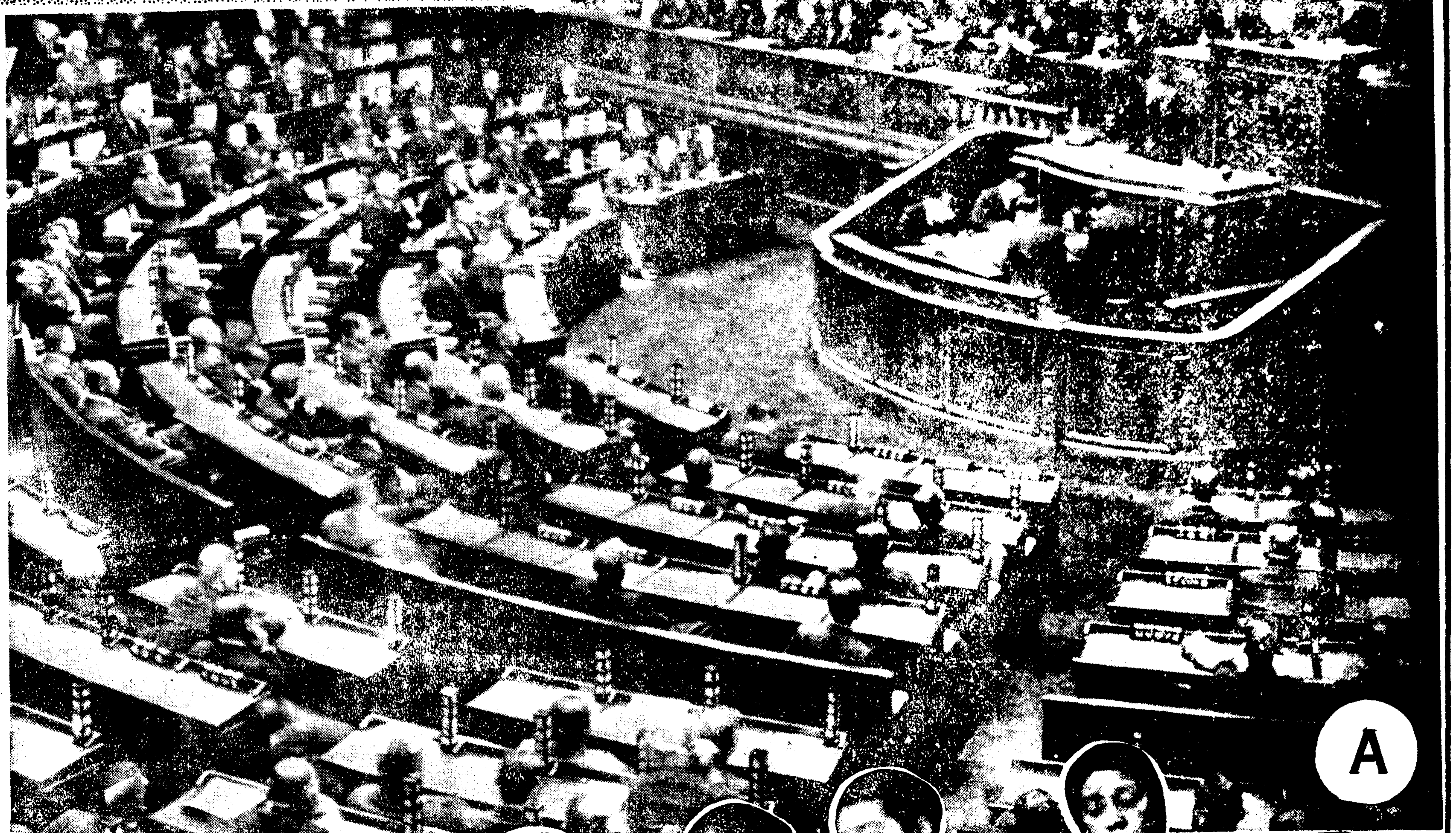
各地 菓子店에잇슴

一個 五錢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豊國製菓株式會社

戰時議會雜觀



寫眞說明

戰時下의 第七十三議會는 去二十二日로 再開되엿다 寫眞은 A、二十三日日曜임에 不拘하고 開會한 衆議院本會議 B、近衛首相의 施政方針演說(二十二日) C、女子學習院生徒의 議會傍聽(○印은 北白川宮多惠子女王殿下—二十二日) D、外國使節의 議會傍聽(右端이 英大使크레기氏 二十二日) E、日曜議會의 大臣席(二十三日) F、超非常時議會警戒를 압두고 警務課長訓示(二十一日)

警告

暴寒襲來!

감긔안들도록注意하시요

●肺病、늑막염、神經衰弱、氣血俱虛、陰虛火動、陽氣虛失等、다시추서기어려운 重病이 모다 감긔와 체증으로 始作됩니다

●그러나 百補丸을쓰면 大補元氣 補陰 補陽 氣血雙補하야 감긔와 체중을모르고 陽氣自興 用之不渴하야 房事過度를 모르고 치위도모르게됩니다

大補元氣

過色過飮으로因하야 몸이虛弱하기始作한사람은

一、百補丸이 아니고는 完全히 永久히 回復되는藥이 다시업슬것을 明言합니다

二、人生의 再逢春、無病、健康、長壽、享樂이、모다 百補丸으로되며

三、百補丸으로 回復된陽氣는 陰中生陽이므로 其根이 完固하야 永久不衰합니다

百補丸을쓰면감긔와체증을모르고過色過飮으로 因한諸症을完全히回復

000546

高貴漢方

神人道師 葛玄眞人 이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脾補心補腦補肺補骨補全身을補不老長生延年仙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補氣 平生無病健康長壽劑

堂堂、世界第一이證明되엿스니 服藥家의 疑心은 一掃되엿습니다

堂世界第一

▲朝鮮에도 世界各國에서 조타는補藥은 各種各色이 全部輸入되여 그猛烈한 販賣戰을하고잇스나 그러나 그中에도

▲賣上으로도 百補丸이 第一이요 貴族兩班을 爲始하야 京鄉各界 朝野名士 점지안은분들의 愛用과 大推奬을 밧는것도 百補丸뿐이요 數十萬服藥家가 効力조타고 方々谷々에 稱讚의 소리가놉흔것도 亦是 百補丸뿐이요 또

▲京城四大郵便局의 發送數字가 朝鮮藥業界有史以來에 特別 越等 最高라고 證明되는것도 百補丸뿐입니다

●世界의자랑 天下의 名藥百補丸은 朝鮮第一을 土臺로 世界第一의 百補丸으로벌서

●英國、獨逸、佛蘭西、米國、瑞西、丁抹、伊太利、和蘭等 二十一個所에 輸出開始되엿습니다

이것은 全혀 그効力이 神奇하고 圓滿하기때문에 西洋사람들도 歡迎하는것입니다

百補丸의効力은 이러케굉장합니다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 手足과 下체가 恒常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 徵兆이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씩씩한 靑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耐久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 체증 속병가튼것은 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도못하게업서집니다

一、눈이밝아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다잘補하야 참말完全히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大旺합니다

一、過飮過色人 虛弱人에게는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腦、性神經衰弱에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精力絶倫하며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 不老長壽할수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 消滅됩니다

價: 百補丸 一劑 特價 拾圓 / 婦人百補丸 一劑 特價 七圓

無料進呈: 三劑以上注文하시면 一劑無料進呈

生男生女・天下待望의世界的名藥

高貴漢方 婦人百補丸 發賣開始

重要販賣所 ▲本社直賣部▲朝鮮總督府商工奬勵舘▲全朝鮮十三道廳商工奬勵舘及商品陳列所▲全朝鮮有名藥店▲和信▲三越

京城府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〇番・振替五番

家庭

일즉이결혼해야 행복되게산대요
안·크로스만녀사의조혼주장론
어떤점으로보아그럴까

물론되기전에 벌써 약혼을 해노코 열두서넛살되면 코를 질질흘리는 초립동이를 맨들고하든지절은 벌써 옛날이지만 요즘와서 이와반대로 시집장가가 적적더니 저갑니다 「아직 나이도어리구 또처자를 맥여살릴만한힘이잇서야징 아직은 혼인이 급하지안어요」 하고 요새어머니는 제법이런소리를 하게되엿습니다。

젊은청년의 마음가운데에는 내성을 드러모시고 결혼하겟다는 히망을 더러내노키를 바로드는이이나타나는 늦다란 장벽은 무어냐하면 경제문제입니다。할일로 은물거치럼 늦게혼인하는 풍조가잇서부지대는 지방에 잇서 보지를 못해습니다。세게적인경제불안에서되는 어렵수업는 일이라고 치드래도 결혼적령기의 만혼남녀들이 그때문에 생활에 확실한목표를 끄러안지못하고 질고 긴독신시대를 황폐한기분으로 지내게되는이 현상을 예사로보아 번뜻이겟습니까 아니겟습니까 이제부터말슴드리랴는것은 세상의부형들이 떡이나 위하는 조혼(早婚)에 도리어 만혼리점이만라고하는「안·크로스만」녀사의 주장이올시다。

◇

불안 번민이만혼시대일수록 결혼을일직하고 불안인니다。나는조한다고 권고합니다。일반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결혼한사람이 결혼안한사람보다 몸이피로할것가트나 사실은 이와반대입니다。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잠을잘자고 휴양하는상태가 조습니다。이것은 독신생활에는 그자신에게아무런 궁극의목적과 의의가업는까닭인족, 목적업는 행위에는언제나 피로가 껴붓게되는것으로 매일매일의 생활무생에 필요이상의신경을 끈하게만드는까닭입니다。

그러나 기혼자는 서로서로를위해서라는 확호한목적이 이미잇습니다。가정생활이조후에남은희망의 원천이며편안한괴난소이며 괴끈한영혼의세탁소인것은 더말할것업습니다

그리고 또 조혼이이의이라고말슴드리자는것은 안정한 경제적기초우에서 나이 가드러서하는결혼은 까닥하면 타산파리기심의 끌리기쉬우며 그때문에 파탄이오는수가만호나 조혼은 이와반대로 결혼의행복을위해서 가장필요한 희생적정신과 어떠한역경에 잇게될지라도그것을 의여야하겟다는 강한 의지가길러지는것입니다。이 사실은 조혼자야 가를녀령의독신자와비교해보면 금방 알수잇는것입니다

또하나 조혼이리의되는것은청년기에서 엇기어려운청결파질서서의조혼습관이 어느듯배혀버리는것입니다 그리고 불중한수입에대한 피묘한 번둥성이 생기고 돈을허피쓰는버릇이 언게되고 돈모으는재미를입게되고 갑자고몸에조흔음식물을 선택함으로해서 영양에대한 지식이늘게됩니다。이러한요소는 결혼생활의 행복을위해서 업스면안될것이며 늦게경제적불안이업는 결혼에는 이런습만이 걸러지기어렵습니다。

늦게혼인하는것이 생리적으로는 경시할수업시 도도나·쿠라만 맥기쉬운것인족 부형되신분들은 집안형편쏨 어렵다하드래도 자녀들을 어들 결혼시켜주서야합니다

이상의말한것이「안·크로스만」녀사의주장인데 우리네는 결혼의 시기문제를 다시한번 냉정히생각해볼필요가 잇을것입니다

어머니醫學讀本
유아의헤르니아 (2)
城大病院 校井外科 文仁柱

그런데 혹시음낭에 물이고이어 음낭이 부어오르는 병이잇스니 이러한것을 보통사람은에르니아와 잘구별 못할때가잇습니다 이러한때에는 청음부터 부어오를것은 안만 미러너흐랴하야도 들어가지안습니다

다음에 헤르니아람병은 어떠케 치료하얏스면 조흘가를 이야기하겟습니다

헤르니아가생긴 구멍이 아주 적고 부어오르는 정도도 아주 약하야 어쩌다한번식나오게된다면 그냥두어도 어린아이가 차차발육하는데따라 자연히 나어서 다시나오지안케됩니다 그러나 구멍이 커서 손가락이 드러가도록되어잇스며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자조부어오른다면 그냥두어서는 도저히 나을가망이업습니다 헤르니아의 근치법으로는 외파적으로 수술하는것이 제일입니다마는 아직 유아때에는 수술하기가 거북한때가 잇슴으로 수술하지안코 다른방법을 쓰게됩니다 제일간단한방법으로는 반창고(絆創膏)를 사용하는것입니다。배꼽헤르니아인때에는 부어오른것을 손으로밀어너코 반창고를 넓고길게비어서배꼽을중심삼아배가죽을 조아하야 반창고만을 일주일에 한번식 가라서부치며 반창고의 힘으로써 안만 배에다 힘을주어도 배꼽으로부터 아주나오지안케합니다。또는 일전짜리동전을 부드러운 까—제로써 싸가지고 이것으로 반드시 부어오른것을 전부미러너흔후에 배꼽우에다 꽉대이고 그우에다 반창고를 길게 조아부처도 조습니다。혹은 반창고대신에 허리띠를 맨드러 일전짜리동전을 대인배꼽으로부터 허리를 둘러매도조습니다。 그리고 소혜헤르니아 음낭헤르니아인때에는 배꼽헤르니아인때모양으로일전짜리동전을 대이고 정자(丁字)형으로 떠를 맨드러 허리에 둘러매어도조흐나 아이가다리를 자조움지기게됨으로 대인것이 일정한 자리에 잡부러지지안흘때에는 아주교묘하게잘들어 부러잇게맨든 탈장대(脫腸帶)를 제조하야 약방에서 팔고잇스니 이것을 사가지고 둘러매어도 조흡니다。

이러케해서 한달 혹은 두어달지내면 나을수잇는것이라면 잘나허서 다시나오지안케됩니다。두어달을지내도 낫지안코 다시부어오르고 나온다면 반창고 혹은 탈상대를 그냥계속하는것은 생각할여지가 잇겟습니다。어째그러냐하면 어린아이의 피부는 부드럽고 약함으로 반창고를 부친자리 혹은 탈상대를 대인자리가 헐고 염증이생기며 잘못하면 무서운 단독을 발생하는 일이 잇습니다。그뿐아니라 어린아이의몸이 아주왕성하게 발육해가는 시기에 탈상대 혹은 반창고로써 조아맴으로 아이의 허리 뱃가죽 두다리의 근육의발육이 조직못해지는수가 만습니다 사실상으로 보드래도 음낭헤르니아로 탈상대를 여러달동안 일념동안이나 게속하야 사용한탓으로 두다리의 근육이 잘발달되지 못하야 아이가 이상세가 되도록 보행을 잘하지못하다가 탈상대를 그만두는지 혹은 수술하야 근치한후에 아이의 발육이 갑자기 조하져서 잘보행하게 되는 것을 만히봅니다

단잠을깨우는「꼬교—」소리
호래비닭일수록청을더잘뽑바
어째닭이때를직힐까

새벽마다「꼬교—」하는닭의우름소리, 시게업든 예전에는 어소리가 새벽잠을깨우는 자명종노릇을 햇든것니다만「어째서 닭은 시간마치 꼭 고때가되면 우는가」하고 무르면 세상것을다아는체하는사람도 대답을못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닭의우름을 풀수업는 수수거끼로합고 머리를 아퍼왓든체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동경대학을 연구하는동경의 삼포의웅(三浦義熊)이 단닭이「꼬교—」는「교트론되었다이니란」하고 그 어려운수수거끼를보기조케푸러헤치고 마럿다는체입니다。

◇

이연구를 위해서 그분은 데그동안동의 흰닭을 실험대에올려노코 여러가지 흥미잇는 실험을 해엿는데그 연구한바에의해보면 수탉은 처음부터 저녁때 닭의장으로 드러갈때까지 우는데해가지면 발은이 어두어저서 모든것이 보이지안어 잠을자고맙니다 이잠자는동안에 흐른문이 채내에 괴여새벽 세시경쯤가되면 일정한분량에 차게되어 그것이 밖으로 사라는바람에 아래배가 자극되어 그만 저도 모르게「꼬교—」소리를 치게되는 것이탐니다。

즉 심신함에 노래를부르는 것이아니고 지나치게 괴인 흐른몬의 발산으로해서 오는주기적현상(週期的現象)이라는것이입니다

그럼으로 가르어미에게서 나여재린온정질이가튼만거로「호르몬」이괴이는 시간도 가태서 우는시간도 일치한 것을 알게되엇다합니다。

이 결론을 엇기위해서한 실험에의하여그로서 수탉의병아리를 까지오신열만에 고환을 까버렷드니 훼신시게서야 울기시작하고 다자란뒤에도 우는것이 보통닭의 반도안되는생이 때를 직히지못하드랍니다。

또숫닭을 병어리를부러써일『녀성홀몬』을 주사한즉 이편도역시 우름을낫게서야 올게되고나중에는「교꼬—」소리를 이저버리다시피되며 또 암해가잇는닭은 호래비닭보다「꼬교—」소리를 만히하지안케되고, 처희부터 두희, 세희……이러케 종편이 훼까지 청종맑게 우는놈은 두말할것업시 호래비닭이라합니다。

저녁에 닭이우는수가 잇는데 이것은 호르몬작용에 변조가생긴까닭이며 일기가 조치안흔것으로 잘우는것으로 말하면 원기왕성해서 호르몬의 작용이잘되는까닭이라고 설명이 처저드러맛게된다한답니다

지차리우
분대신개흙

지나남쪽에「비르마」라는 나라가잇는데 그나라에「안다만」군도라는 섬이잇서요。이섬의 사람들은 각금모여서 서로 몸에 개흙칠을 해줍니다。모양내느라구요。

(글은사람 박선생)

시게잘못가저 이런손해
◇무엇에그런지아십니까

시게를 선택하는데잇서서 시게딱지가 열브면 내부장치를 압박하야 자칫하면병이나므로 될수잇는대로 두터운것이 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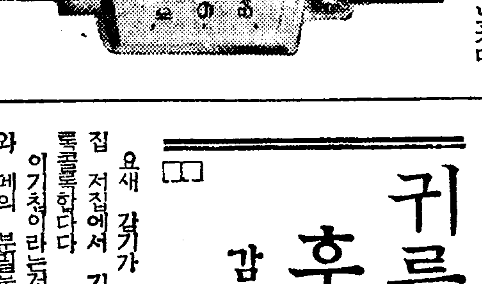
기게속에 드러잇는 보석은 십오석이보통이며 그이상잇는것은 시게자체에는아무리로움이업습니다

두서너번 태엽을 감어보고 꼬웅치이기 시작하는것은 조흔것이나 흔드러보면 꼬웅치이지 안흔것이잇습니다 이러한것은 부량품입니다。

소리가 조습니다 고르지 못하게 소리가나는것은 조치못합니다。탈이난시게만을 손질하는게아니라 탈나지안흐시게라도 자주손질을 하도록해야합니다。

산지멋해가 되여도 탈나지 안햇다고 장담만 하지말고 늘손질하며 검사해보십시요 실상당신의 시게는 작고 수명이짧어저 갑니다 한해에 한번식은 반듯이 소제를하고 기름을넛토록해야됩니다

쓰지안흘때라도 시게는 몰고꼬웅치이라고 생겨난것이므로그냥두지말고 하로에한번식일정한 시간에 태엽을감어두지안흐면 안됩니다 태엽을 갑지안흐면 기름이말러집니다。



기게기름은 내프타령근처에서는 말러버리므로 절대로『내프타린』근처에노치마십시요

뚜경과 줄도 늘소제를해야한니다。

금이나 은은 네루와가튼 보드러운 헝겁에 알콜을부처서닥그면 때가벗겨집니다

금이나 은은물론하고수은(水銀)이떠러지면 구멍이뚤러집니다

은은 류황을 만나면 검엇케 타버리므로 류황천(硫黃泉)의 약물탕에는 조심하십시요

크롬은 헌겁에 올리—브기름을 뭇처서 닥고나중에 마른헝겁으로닥도록하십시요

팔뚝시게의 밴드는 기름땀으로 때가잘끼입니다 회발유나 알콜로씻스면됩니다。

기게를 몸속에 떠러트려버렷슬때는 맑은물로잘씻고 곳 석유나 휘발유나알콜속에 너허서 시게방으로 가저다 주십시요

몸속이 아니라도 떠러트리면 충동이강하야 고장이 생기기쉬우니 곳시게방에가저가서 검사를해보고 유리는습기를 방지하므로 깨여지거던 꼿끼우도록 해야합니다。

굉장히만히밧는 미국월급쟁이

이답 속어드레스날 미국의하원세인유원회(米國稅人委員會)는 위성톤에서 회의를 열고 작년도의 월급쟁이로서의 고급자순번을 심사하야 발표햇습니다。월급쟁이라면 너무만허서 주체하기 어렵다는 미국의일이라 세상에서는 월급쟁이처럼 비참한것은 업다고 말하나 이나라에 한하여는 절대 놀라지마십시요。

일등만 월급쟁이지 실상은 조선가튼곳의 자본가보다 훨신더 수입이 만답니다。

세일의월급쟁이 발표한데 의하면 제일고급사가「제너럴모—타스자동차회사」사장이며 그다음이 그회사의 부사장이엿습니다 그다음으로 세째번부터 아홉재까지는 모두 영화배우가 점령하고잇스니 영화의메카 헐리우—드의 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하다는것을 말하고잇습니다。

그순번은 다음과가튼다 여기한가지 주목할것은 작년도의 사정발표에 제이번이엿든 메이웨스트라는 영화배우는 금번에 제六위로 전락해버리고 거리—·후—퍼—가 제삼위로 배우중의령을 점령하게됨니다。

一、알후레드·스—롯(제너랄모—터스사장) 연봉구십이만불
二、윌리암·크넷드센(제너랄모—터스부사장) 연봉사십오만구천불
三、거리—·쿠—퍼(영화배우) 연봉삼십칠만불
四、로널드·콜만(영화배우) 년봉삼십육만이천불
五、크로데트·콜벨 연봉 삼십오만불
六、메이·웨스트는 연봉삼십이만삼천불
七、마데린—느·캬—롤 연봉이십팔만이천불
八、워—나바크스타— 연봉이십팔만사천불
九、마르레—느·디—트릿히 연봉 [illegible]

이러케 평장한것을 헴여보시네의 사람들이 월급과 비교는 부대하시지말도록 미리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진은 차레로 스—롯, 크누드센, 쿠—퍼—, 콜맨, 코른벨웨스트, 카—롤, 박스터—, 디드릿히、)

귀를잘못 후벼도기침
감기에만오는게아니라 여러가지병에서도원인

요새 감기가 류행해서어집 저집에서 기침소리가콜록콜록합니다

이기침이라는것은 지만지와 페의 분필물을 배설하는 호흡작용인데 당은 바로 그배설합니다。기침은 어떠한 경우에 생기느냐하면 그원인이 다음과갓습니다

×

첫재로 인후와 기관지의 점막에 부러잇는 기침에는 분필물이 생기는 습성기침과 분필물이 업시 생기는 건성기침 두가지가잇습니다 좀더 자세히말슴하면

1、힘업시 나오는 바튼기침은 폐결핵의시초
2、경런성인 기침은 백일해
3、발작적인 기침은천식
4、개짓는소리처럼 기침을하는것은 디후테리아

이러케 들수잇는데 인후염, 편도선염, 후두염, 기관지염, 펫, 늑막, 복막, 간장에서 생기는여러가지 병과 백일해 디후테리아, 폐염, 히스테리—, 뇌염, 그리고인후미주신경의자극……이러한 병으로해서 기침이납니다。

×

둘재로는 인후 늑막 간장 복막의자극

셋재로는—기관지가타루가생기면 기침이나고 늑막이나쁘면 반사적으로 기침이날 복막을 자극해서도기침이나며 귀를후비다가도기침이나는수가잇는데 이처럼 기침나는원인이 만흐니 「기침—」하면 「오라 감기드럿군—」식으로 속단해서는위험합니다。만일에 목에 무엇이드러잇기때문에 나는 기침은 이것을 나오도록하는것이니까 필요하지만 다른기침들은 대개병세를 악화시키는것입니다。

×

그러나 기침이날때는 어떠케해야할까요

(가)—자극을 적게할일입니다。그러자면 몸을더웁게하고 몸을놀리지말고 편히잇는것이 조흔데 기침이 너무나오거든 의사에게 말해서 기침약을 먹도록해야합니다。

(나)—너무 짓거리고웃고하면 기도의점막이 자극되어 기침이더나게되니、주의할일입니다。

(다)—담배, 커피—, 홍차, 술등의자극성잇는것은 피해야합니다

(라)—가래가 나오거든생키지말고 배트십시요 그리고 되도록 가래를 나오게하십시요

(마)—목아지와 가슴에온습포를하고 가래를 배트뒤에는 양추질을해야합니다。

(바)—흡입기(吸入器)를 가끔가끔쓰이고 밤에는 손발을 이불밧그로 내노코자안도록하십시요

(사)—환자잇는방에 맛바람이드리치서는 안되지만외풍을맛는다고 밤나스로 문을꼭다더두는것은 편나쁜즉 가끔문을 여러조흔공기를드리도록해야 하며방안의 온도와 습도를일정하게 하며 병에대해서는 물론의사의지로 고칠노리를 해야한니다

中篇小說 女人命令 【35】
李善熙 作
崔根培 畵

거리의등불(十一)

흥분에껴우는 여자의우름소리가 노픈성곽(城廓)파가튼 벽을 담을 돌아서 파수직이 간수한테까지 들렷든모양이다。때가 밤이고 또여기는 쳉뎅그레한 비빔판이라 여자의 가는우름소리도 만만치안케 크게 퍼저서 드디여 파수군이 깜작놀라 달려오게되엿다。

『 누구야?』

화—하고 데짜를드려비친다。

『누군데 이러케 울고잇서?』

『네?』

숙채는 뒤로 비실비실 멋거름 물러섯다。

『웨이러케 밤중에 여기와서울고잇서 젊은여자가 여기 누가잇서?』

『네—』

『누구야?』

『……』

『누가 여게와잇서?』

『오빠얘요』

『응……』

간수는 숙채의 아래우를 작고훌더보면서 대단히 미심쩍어하는 눈치다。

『저—서울서 면회를왓는데 될까요?』

『서울서 왓서?』

간수는 더욱놀란다。

『서울서 면회를 왓스면 내일와서 면회신청을하고 해야지 지금 이러고잇스면 되나?』

『네 래일아침엔 될까요?』

간수는 숙채의못는말은 대답도안코 한참섯드니 뚜벅뚜벅무거운 구두소리를 내면서 저쪽으로 걸어간다。

『이안엔 유원이가잇다。내가지금 밧게와서잇는줄도 모르고 눈이 꿈벅꿈벅해 안젓겟지』

숙채는 행결마음이 조와서서 동속에 노피소사잇는 그성벽을 다시한번 처다본다。

그러나 그안은 밤슴 귀신이 음산한 기운을 모라가지고 달리는듯 도모지 알수가업고 무시무시함이다。

『내가 여기 왓는데……』

숙채는 손으로 찬돌담을 가만이 문질러보앗다。그리고 고개를 뒤로 밧짝재키고 그담꼭대이를 처다보니 어쩌도 까마득하게 노프지 나는새도 엄신못할것갓다。

『내가한번뛰어넘을수잇다면ㅡ』

숙채는 그담만 뛰어넘을수잇다면 그안엔 바로 유원이가잇슬테니 지금숙채와 유원이 사이는 불과면간되는 땅이가로막히지 안혓다。

정문은 큰 쇠문이고 그우에 불이 환하게 켜잇서 파수병의 잔등을 빗치고잇슬뿐 그저 침묵이다。

『여보시요 이리솜와요』

숙채는 도모지 그피스톨을허리에 둘러찬 사람들 잇는데로 가기실흐나 또안갈수도 업서서 갓다。

『여기 온밤 이리고잇슬작정이오?어듸 려만에라도 들엇다가 래일 면회를 해야지』

숙채는 알어들엇다는 뜻만표하고 또 머니섯섯다。

『어듸로 가시려오?』

『글세 어듸로 가야 조흘런지 모르겟군요 이근처에 어듸하룻밤 류할데가 업슬까요?』

『이근처에?여겐 집이라고 두어채밧게업는데 게다가 넘우 루추해서……』

『아니 괜찬허요。이근처가 꼭 조켓서요』

숙채는 오늘밤 이감옥을 떠나서 다른데 가고십지안헛다。

이러케 이담장을 처다보면서 한밤을 새이고시펏다。

『그럼 이리로 오슈。여기오래 잇스면 안돼』

숙채는 암말도안코 그뒤를따러갓다。간수는 압서서 덜컹덜렁가드니 다리하나를 건너서 밧가온대로 드러선다。

『테이상 게슈?』

『네—누구십니까?』

문이 열리며 눈이 쉬리나 들어간 사내가 거의죽어가는 목소리로 못는다。

『나요』

『아이 나—리께서 어떠케 어밤에 나오셧서요? 난 또누구시탄구……』

『다른게 아니구 여게 이분인네가 서울서 오빠되는이의면회를 와쓰는데 밤중에 갈곳도 담장에 부터서서 울기만하니 하도 떡해서 다리고왓소。오늘밤 데이상댁에 류하게하시오』

『네— 그러지요』

숙채는 그집 뒤ㅅ방으로 인도되엿다。그리고 오래간만에보는 람포불을 켜서 드러왓다。

숙채는 그불을 드러다보고잠을 일우지못하는동안 별별 생각을 다햇다。

『서양선 빵속에다가 편지를써너허서 감옥가티 드러보낸다든데 어떱 죄수는 이십년동안 한곳을 파서 나중엔 그구녕으로 도망을햇다지……』

이러한 어천난 생각이 숙채를 더욱 혼란케햇다。

결비정토
윳패를보아서 업는걱정사지맙시다
년운을 마치다니 될말입니까
어리석은사람의할짓

음력정월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어쩌까닭수가 그리만흔지 이런날은 저런일을하면 못쓰고 저런날은 이런일을하면 못쓴다고 거의 날마다 기하는 것이잇고 가린는것이 잇습니다。위선 례를들면 첫 사일(巳日)은 뱀날이라고 머리를빗게하고 첫진일(辰日)은 룡날이라고 칼질을 못하게하고 또 첫묘일(卯日)은 톳날이라고 일흔아침 남자손님이 차저오는것을 금하는등 별의별일 괴상스러운 풍속을 다 지키어노코 잇습니다。만일 첫묘일날 이른아침에 귀한 몸일이잇고 그몸일에 남자가 가야한다면 어찌합니까? 그러타고 차저가지를 안키나 또그러타고 그 손님을문간에서 도로 쫏차버리어 일을 고만 낭패보아야합니까?

우리 생활에는 아즉도 미신이 만히로 차하여 그릇치는때가 하나 둘이 아니올시다 사내중에는 그래도 그수가드믈니다 만은 안악네들은 안그러틈이 오히려 예외로 그수가 만라쁘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병난사람을 약으로 고치지 안코 굿이나 푸닥거리로 고치며 눈뜬 사람도 아지못하는 노릇을 눈먼 장님에게 물으러덤빕니다 그나 그뿐이가요? 그럼 저럼 협잡군에게 속아 재물을 빼앗기고 미친놈에게 놀아나서 망신조차 하는일이 좀만호가요? 사주쟁이 상생이등 간판아래 안악네의 막중한 정조를 엿보는자 부지기수요 뛰쟁이 노릇하는자 부지기수요 하다못해서 신이 징어먹다고떠들고 생사람을 잡는자 또한 부지기수올시다가 그것을 모르고침뭇 칭을햇다가는 자기일생을망치고 전가섯도 망친다는 기막힌 격파에 이르고 맙니다。

×

설마하니 그런일이야 잇습니고? 안악네다운 생각입니다 요사이 신문 사회면을 잘보시지 안습니까? 신문에오르지 안는것은 말말고라도 신문에 나는것도 참으로 부지기수입니다 적으나 크나 미신이 될에는 다른이 업습니다 첫사일에 머리안빗고 첫진일에 칼질안는 그양반들못과 푸닥거리를 못해서 거정할양반이요 또굿과 푸닥거리를 하고시퍼하는 양반은 간약하고 흉칙한 무리에게 속아 넘어갈 양반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애기를 난후 예철일까지는송장을 보고서 애기를 보면 상신이 노하야 병여이 나린다고 하지 안습니까? 그러라면 매일 송장을 다루다시퍼하는 의사를 불러다가는 어떠케 산모나 갓난애기의 병을 보아달라고합니까? 요컨대 미신이란 모든가 대중이 업는 수작입니다。그 대중업는 수작에 어매여서 실제생활을 구속시키는것은 천번만번 우스운일입니다

×

음력정초는 유난스럽게도미신속에 파뭇치어잇습니다 음력설을 설도가나는것노 현대인의 생활을 해치는것이어니와 거기따르는 미신을 그대로 지킨는것은 더 말할나위가 업습니다 부녀자란 말은 흔히 어리석다는 형용사로 통하는데 사실상 거기대한 반대를 부를지술 조건이 빈약합니다。

그까진 일진쯤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오히려 끼쇄한 일입니다 음력정초와맛부러 단이는 미신으로 가장큰 미신은 윳을 놀아서 년운보는 소위 윳패와 생년월일로 년운을보는 소위 토정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모러케나 떨어지는 윳가락이 개가 되거나 도가 되거나 그무엇이 되거나 그것으로 어떠케 그해의 조코 나뿐것을 아리까? 열번 놀아 다르고백번노라 다 다른거를 어느때 한번노는것을 가지고 어떠표준을삼아 말한다가? 그야말하기는 웃도박으로 노는것과정성드려 노는것이 다르다고 할것이오나 윳가락을 떨어트리는대 그 무엇이 다르오릿가? 아니 천지신명이 그정성에 감동되야 자기의 년운을 마치도록맨들어 주시리라고 밋고 계실찌도 모르나 천지신명이란것부터 우수광스러운소리가 아니오니가? 그러키때문에 재래로부터도 윳패는 토정비결만큼령험하게 치지를 안는 모양입니다。그중에서도 윳패보담은 토정비결이 더큰 미신으로 되야잇습니다。

×

토정이란 어느 지금으로부터 한사백년전에 실제로 사라게시든 어른입니다。그 어른은 천지의 묘한 이치를 만히 알아서 아조 이인노릇을 하얏다고 전합니다。그러나 사람은 아모리 용해도 한게의 사람인지라 이인이란것이 잇슬수 업습니다。토정을 이인이고라 떠드는것도 그 당시ㅅ사람의 어리석은 송음이아니라면 전혀 그뒤ㅅ사람의 꾸면논 이약기입니다。그뿐아니라 토정의 자손더러물으면 토정은그런 비결을 지어낸 일이업답니다。 어차어피간 토정비결이란 맹랑스러운 책에 지내지안습니다。좀 생각해보십시요 토정비결에 잇는 조목은 불과멧백개요 세게인류의 수효는 이십억이 아닙니까?대개년운은 사람사람은 다 다르려니 이십억명의년운을 어떠케 멧백개의 조목으로써 마치어 내겟습니까?오죽 조선사람만을 표준해 맨든것이라고 가정합시다 조선사람만도 이천삼백만명이나 되지를안습니까? 적어도 이천삼백만 조목을 벌리어노코 일일히 그의 년운을 아리켜내야할노릇아닙니까?

×

윳패니 토정비결이니 모도다 미신의 작난이라는것은 더말할여지가 업습니다。비행기를타고 라디오를 듯는 현대인으로서는 작난으로바게 더생각할수밧게업습니다 그러나 어째보앗거나 보다가 나쁜대문이 걸리지 안습니까? 약한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아모렌도 마음이 껌으찍하고 입맛이 떨떨하게 되기쉽지 안습니까?좀더 심한분은 일년내내 기분이불쾌하야 모든일의 겁이생기고 의심이들게쯤 됩니다 그러한 심리상태가 모든행동에 영향을미치어 적지안한 지장을이루고 또 상당한 손해를 보는수도 업지안습니다。작난으로라도 고약한 작난이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것은 미신이요미신으로믿을필요가 업다고 보지 안는것이 어떳습니까? 토정비결을보고 난뒤 그해의 년운이 나쁘다고 심신이 불평하게 지내다가 일을 망치는예를 우리가 봄것만도 비일비재올시다 그것을토정비결이 그사람의 년운을 마친것이아니라 그사람이 토정비결을 맛치는것이라고 볼수잇습니다。

×

『약한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것만이 아닙니다。결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자여! 그대의 이름도 여자니라』

안악네들이 뛰어 일어나서 미신을 밟차십시요 그래서 이와가튼 챙피한 말을 듯지 안토록하십시요。

(사진은 소경의경읽기와 산제지내는것)

三皇부터周代까지 東洋文化의考究(三)

白耳義東洋學研究所 金載元

이五行說의 當時人類의 第一의 觀察으로되엿슬 春夏秋冬·朔節循環과 節候되여 생각된것은 맛당한일이다. 이五行思想에 依하야 天體를 五分하엿스니 北極及 其周圍가 天體의 中央 이것을 出發點으로 四分으로 눈아지는데 이것이 春夏秋冬四期에 따라서 個別區劃된다. 이五行이 地上에도 나타나니 即土(黃)은 中央、木(靑)은 東方과春、金(白)은 西方과秋、火(赤)는 南과夏、水(黑)는 北과冬이다 東方蒼帝靑龍 南方赤帝朱雀 中央黃帝麒麟 西方白帝白虎 北方黑帝玄武라는것은 古來로 선배(士)의常識으로되여잇다.

漢代에이르러 味와 聲에도 五行을 配合하게되엿스니 素問의 말에 『天有六氣、降生五味』라고 하엿고 杜預가 이것을 註解하야 『金味辛 木味酸 水味鹹 火味苦 土味甘 皆出陰陽風雨而生』이라하엿다. 五聲이란 宮商角徵羽이다. 우리人體內臟의 肺胃等에도 이五行이 配合케되여잇는것은 누구나다-아는것이다. 이問題를 지금 우리가 깁게論할 餘地업스니 讀者는 이에 對하야의 一平易한 論文으로 東方學報 京都 第三冊 所載 狩野直喜 「五行排列と五帝德に就いて」를 읽기를 勸하고싶다. 우리가 지금이곳에서 말하고저하는것은 이五行思想으로 말미암아 司馬遷도 六帝를 五帝로 곳처 史記五帝本紀를 지엇다는 推測이다. 五帝를 일을때에 이世界를 順化한五行思想에 依한 다섯이고 그外別것은 眞正한 意味에잇서서의 歷史的意味가 업는 것이다.

그後 前漢書에 依하면 司馬遷死後 劉向劉歆父子가 나서 비로소 帝德이란 以上의 五行相勝說보다 五行相生說로 相循環할것과 易緯에 依하야 第一의 『皇帝』가 木德이 아니면 안될것을 發見하엿다고한다 그러나 黃帝는 그名就에 土德에서 離脫할수업슴 때문에 後人이 五帝우에 三皇을만들어 伏羲(木)神農(火)黃帝(土)로하고 그뒤의 五帝順도 司馬遷때와는 달으게 되엿다. 紀元八世紀에는 司馬遷의 註釋者 司馬貞이 그周說生된 三皇때문에 司馬遷史記를 補充하되 三皇 伏羲女媧(兩者共히木德)神農(火)을 五帝우에올려노흐면 三皇을 가지지못하엿다. 따라서 지금의 帝王世紀上으로는 이三代도亦是三皇五帝說로 意味하기 純粹히 歷史的存在라하기 어렵다.

이三皇五帝說은 歷史家의 所作이다. 이것은 때로 어떠케 하자. 다만 그러면 그名稱은 어디서 왓는가하는것이 問題인데 이것은 古代의 各民族의 가지고잇는 神話傳說에서 取한것일것이다. 그래서 名稱이 同一하지 안타 外에도 數說이 잇스니 例를들면(括弧參照)

三皇 1天皇地皇人皇 2天皇地皇泰皇 3伏羲神農女媧 4伏羲神農祝融 5燧人伏羲神農

五帝 1少昊顓頊帝嚳 2大皞炎帝黃帝少昊顓頊

古代史에 對한 記錄이 잇스되 信憑할것이 되지못함으로 周代以前의 所謂上代에 對하야서 모든問題는 考古學의 助力으로 解決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때까지 夏代의 存在를 證明할만한 何等의 考古學的材料를 가지지못하엿다. 따라서 지금의 ……

그대신 存在가 疑問되는 商代에 …… 代이다 商殷이라고 불은것은 周代이 商이라는名을 ……으로 改稱하엿다는데 依한것인데 이名稱에도 解決되지 못한問題가 잇스나 아모튼 一般學者의 ……

이商殷時代의 文化狀態에 對하야는 近代에 와서 많이 알게되엿다. 이것은 近代中國學界의 最大收穫의 하나이다. ……

學藝

自己分裂의超克
—文學에잇서서의主體와客體—
⑦ 金南天

主體의 問題를 重心으로 다시 이러나기始作한 生活에 對한 再認識은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금새로운 魔의수레바퀴를 던지고잇지는 아니한가.

現代作家에게 잇서서는 如何히 描寫할가의 問題보다도 如何히 生活할것인가가 보다 先行되는 問題라는것은 이지음의하나의 常識이다 다시말하면 如何히 描寫할것인가의 問題속에 들어잇는 主題와 描寫의 問題가 結局 作家의生活로써 決定된다는 理論이다. 나는 勿論이러한 理論에 贊成한다. 그러면 生活이란 槪念이 가지고잇고 同時에 이問題에 부드처서는 다시금 허되히 오궁불도라서지안흐면안된다. 所謂 魔의수레바퀴란 무엇일가. 假令 그것을 다음과 가티 表現해보자. —生活은 노픈 意味에잇서서의 實踐이다. 우리가 아무런 生活的實踐을 가지지못하고 또 가질수가업다 한지금에잇서서는 그러면 藝術文學의 갈길은 막혀잇는것이 아니냐. 이곳에서 아무리 作家에게 昇揚된 生活的實踐을 가지라고 부르짓는다고하여도 그건 아무 所用도업는 空虛한 念佛일따름이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實際上의 問題는 마다른골목에 逢着하엿거나 그러치안흐면 오던길을 다시 꺽구루 도라갈수밧게업다.

이러한方式으로 再認識하게되는 生活은 勿論生活과 藝術 現實과 理想 實際와 理論等으로써 表明될 하나의 至極히 激烈한 相剋의 面貌임에는 틀림업스나 또한 極히 巧妙하게 組織되는 政治主義의 新版인것도 事實이다.

藝術과 生活의 分裂을 이러한 生活의 認識으로 끌고간다면 그곳에는 永遠히 解決될수업는 二元論이 남을뿐이다.

이러한理論과 直接聯關되여잇는 問題는 例컨대 文學者와 社會的人間의 相剋이다. 다시말하면 文學者는 文學者이기前에 爲先 社會的人間이다. 그러므로 社會的公人으로서의 任務를 다하여야 하지안흐냐 하는 理論이다. 이것도 勿論 新版政治主義이고 새로운 二元思想이다.

이러한 思想은 藝術과 社會(政治、生活)와의 矛盾과 相剋을 統一하기爲하야 思考된것임을 나는 잘알고잇다. 그러므로 이問題에 對한 解決은 그것이 二元論이라는것을 闡明하는것에 依하야 完成되는것이 아님도 自明한일이다. 實로 이러한 모든것을 克服하려고하며 또한 이것以外에는 이을수업다고 斷言한다. 왜나하면 文學者는 政治家나 社會運動家가 되는것에 依하야 그의生活的實踐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文學的實踐、文學家的生活에 依하야 社會와 人類에게 奉仕하는것이기 때문이다. 人類의 全世界史的動向에 文學者가 關與하는것은 決코 政治家로써가 아니라 藝術을 들고 文學的實踐과 生活을 가지고 參列한다는것을 正當히 認識하지안흐면 안된다.

이것은 勿論 文學者가 政治的活動을 하거나 關係의 世界에 參與하는것을 拒否하는 理論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特定된 一個人의 問題이지 文學의 主體를 論議하는 마당에서 생각할바가 아니라고 말할따름이다. 그가 工場으로 가건 또는 政治의 가운데로 가건 그것은 그의自由이다. 그러나 그것은 文學者로써 반드시 가야할 길도아니고 또한 文學이 世界的 運動에 參與하는唯一의 길도아니다. 文學者는 文學的實踐을 가지고 서서의 生活的實踐이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文學的藝術的實踐이라고 말한다. 지고 文學的生活을 가지고이가 운데로 간다는것만이 唯一의 眞理이고 또한 藝術과生活、文學과政治를 統一하는 唯一의 一元論이다.

이것이 또한 主體의 自己分裂을 超克하는 唯一의 方向이며 客體와 交涉하야 統一되는 단 하나의 告發精神의 가는길이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態度만이 社會와 個人과의 激化된 矛盾을 文學的으로 止揚하는 唯一의 正當한길이 될수잇슬것이다. 이러케 생각하면 現代作家는 分裂의 時代에 誕生한것도 事實이나 또한 그의超克의時代에 살고잇다는것도 事實일것이다.

이리하야 悠久한人類의歷史가 우리에게 賦課하고 同時에 먼뒷날의幸福된 後世人이 現瞬間의 現代作家에게 要求하는바는 市民社會의 커다스트로피의 時代에잇서서의 社會와 個人과의 複雜하고 激化된 分裂을 廣汎히 槪括하는同時에 이의超克과 統一을 爲하야 싸우는 努力과 苦難의 反映을 후세에 남기는 文學的財産일것이다.

(附記=客年六月初旬 本紙上에서 告發精神을 提唱한 爾來、多數交友의 誠實한 批判을 바더스나 一一히 對答할 機會를 갓지못하엿다. 그後 나의 微弱한 創作上經驗과 아울러 諸氏의 批判에 依하야 첫番意見과는 달러진곳이 만흔것은 내의쓰는글에서 보는바와가트며 同時에 批判이 不當하다고 생각되는곳은 다시금 내의意見을 開陳하엿다. 特히 客年末 本紙上에실린 『유다的인것과文學』의一文과 이글을보아주기바란다. 戊寅一月.)

科學法則의兩面
—經濟法則의歷史的個別性—
① 徐寅植

前稿 『科學의法則性』의 續篇으로 읽어주기바란다.

그러면 經濟學의 對象—一定한 社會生產諸關係가 歷史法則的으로 組成된 根據는 어데가 잇서야할까? 무릇 生產諸關係가 歷史法則的으로 組成되여잇다는말은 곳 經濟로 表現된 人間對人間의 關係가 歷史的法則으로 規制되여잇다는말이다. 그리고 歷史法則이란 自然의 一般法則과 달러서 人類歷史의 各發展段階에 따라 各各 相異한 形態를 갓는것이다. 그 意味에 잇서서 그는 가튼 自然法則으로서도 物理化學的法則보담도 차라리 生物의 發達法則과 相似한點이 잇는것이다.

經濟生活의 便宜上 人間의 經濟生活이 歷史法則性을 갓는다면 그는 어떠한 論理的前提에서 可能할것인가? 어떠한 事物을 勿論하고 『歷史的』이 되기爲하여서는 異質的發展의 것이되지안흐면 안될것이며 『法則的』이 되기爲하여서는 그 異質的發展이 內面的必然의것이 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러면 事物의 異質的發展過程이 內面的必然性으로 貫徹되는것은 헤ㅡ겔에 依하면 그가 矛盾物의 統一로서 形成되여잇는 境遇에만 可能할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카피탈』의 著者가 資本을 解剖한 結果 經濟의 歷史法則의 成立根據를 生產諸關係와 生產諸力의 對立統一의 關係에서 차즌事實에 着目하지 안흘수업다.

生產諸關係와 生產諸力은 社會的生產過程에잇서서 形態와 內容의 關係를 갖고 互相對應하여잇는 統一體이다. 生產諸力의 發展으로 말미암아 形態가 內容을 싸지못할때에는 生產諸關係는 한낫의 關係로부터 發展的인 다른 關係로 轉化하지안흘수업스며 그러면서도 그關係의 移行이 人間의 意志로부터 獨立한 法則的必然으로 貫徹되는것은 그가 生產諸力의 所與의 發展段階에 依하야 內面的으로 決定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生產諸關係의 形成發展轉化가 內面的法則性을 갓고 歷然히 自然史的過程으로 貫徹되는것은 그가 生產諸力의 一定한 發展狀態에 對應하는 形態로서 兩者가 交互的因果關係를 갓고 統一되여잇기때문이다.

그런데 生產關係와 生產力을 矛盾物의 統一이라하면 그들은 當然히 同一의 一面을 가지는 同時에 또한 相異한 一面을 가지지안흐면 안된다. 生產諸關係와 同一한 一面을가지는것이 곳 一定한 物質的技術體制의 單純한 物質的技術體制는 生產諸力(現實態의 生產力)에 잇서서는 生產諸關係와 相異한 一面을 갓고잇는것이다. 生產力은 勞働力과 生產手段의 結合을 意味하는 限(可能態의 生產力)에 잇서서는 生產諸關係와 同一한 一面을 가지고잇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一定한 技術體制를 떠나서 生產諸關係를 말할수 업다. 生產諸關係를 人間의 生理體制에 比喩한다면 技術體制는 그의 骨格系統으로 볼수잇다.

女流作家再認識論
—『女流文學選集』中에서—
⑤ 任淳得

市民社會가 上向線에 올라잇슬 때에만 人形의 家에서 脫出한는것에서부터 婦人의 問題가 進步的 路線에 올르게되엿든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또 婦人들의 社會意識이 노라以前의 것에서 이처럼 추물그리는 가하는 憧憬을 떠에 『아무리 女子니까!』하는 어리석은 생각하는것이 얼마나 活의 公式表現—戶板康氏의 表現을 빌려말하면—이 婦人問題에 잇서서 進步的傾向의 抑壓으로 나타난 것은 두렷하다. 女子敎育이 師範的으로 나 社會的으로나 노라以前의 것—『婦德』—의 基礎우에서 盛行되어잇고 그것의 能動的批判性이 依然히 그公的表現에서 잠재워져잇는限 그러한것이다. 그러므로 市民的範疇에 屬한 婦人問題가 文學上에 나타남에 아직도 『노라』이 해소되고 말한 그 아해는 하는것이 아닌가? 이란 ……

에 이르지못한것은 作家의 罪가 아닌것이냐.

李善熙氏의 『計算書』는 그러므로 인제야 겨우 『小形家庭』의 迷夢에서 깨이는 해서운 『計算하는婦人』을 그린作品이라 하겠다. 時代에뒤떠러진 낡은이야기를 쓴것은아니다. 더구나氏의 都會의 洗練된手法—譬喩하야 말하면—그러진 『計算書』는 內容을 생각할거를 엇게 그生新한맛을 느끼게하여준다. 朴花城氏의 文章의 스끙넘새와 對比하면 二種의 "멋쟁이"의 感까지 이러나게한다.

李善熙氏는 『計算書』에 依하야 現代의 愛情問題에잇서서 婦人이 바더야하는 愛情의 價額을 評定하엿다. 『부부라는 가정이 一간』 ……

남편된자에게 변상해서 바더야할것이잇다.』(一〇八頁)그러면 무엇을 바더야하는가? 그래서도 서로 사랑하던 『나』라는사람의 夫婦가 그들의 愛情의 果實의生產에 附隨하야 惹起되는 不幸으로말미암아 남편의 背離를 가저오게하엿을때 『나』라는 버려진안해는 남편된자의 『생명을바더야 수지가마즐것갓다』(一〇八頁)氏에依하면 그것은 『모든안해된자의 계산서』인것이다.

무서운 發言이엿다! 지금까지 뢰한 男子들 橫暴한 男子에게向하야 이처럼 매섭게 宣言한婦人 作家는 업섯다. 그처럼 『小形家庭』에서 카나리아와가티 아롱거리든 곳이 쌍방이 밧게는 業問이 결정하 ……

는 아마 李善熙氏는 한重大한 計算書를 夫婦問題에잇서서 作成하기爲하야 더나아가말하면 婦人的見地에서의 휴마니스틱한 創作態度로써 나온것이다. 文學의 玩弄化에 對하야 文學의 스포ㅡ츠化에 對하야 强한反對者로써 나아온 한作家임을 우리에게 感知케하면서 氏는 夫婦問題의 眞實한 生活面을 現實的 感性으로써 作品의 短篇的構成은 그러므로 性急한 不在意를 이르키기쉬운것이다. 『小形家庭』을 通하야서가아니고 수만흔 甲厥이와乙厥가 夫婦生活을通하야 『計算書』가 이루어졋다면 氏는 現在遂行해노흔것보다 더훨신 高度의것을 보게 해노흐엿을것이다 이번에 長篇小說을 쓸機會를 갓게된것이다.

發表되엿다.

우리의婦人作家中 陋一의 스타일을가진 그리고 凡凡치아한作家的感受力을가진氏가 정녕 우리를 滿足케할力作을 不斷한努力으로써 보혀줄것을 바라마지 안는다. 바라건대 卑俗한興味와 갈산 『야마』와 稀稀한偶然으로 말미암아 不成功에 끄친 『新聞小說家』들을 睥睨하여주기바란다.

附記—『選集』가운대에서 張德祚氏를 이번에 言及지못한것은 나自身이 붓하다.

氏의文章을 조하한다는 理由에서보다도 나는 氏에게서 누구보다도 優秀한文學센스를찾기 때문이다. 이作家는 우리의婦人作家中에서는 제일 作品의 流行軟性을 안가진作家이기때문이다. 後機가잇을줄안다.

나치스獨逸의 學生勞動團

獨逸서는 學生들로서 勞働奉仕團을 組織하야가지고 그 班과가티 激烈한 勞働을하야 心身의 鍛鍊을 行하고잇다.

『哲學』槪念의變遷
—哲學의普遍的定義의難點—
㊀ 金午星

哲學의 普遍的 特性을 哲學史上에서 비저내려든 史家들의 努力은 徒勞에 不過하엿다. 그러나 哲學은 그 어느時代、어느 哲學體系를 勿論하고 태그가 잇는 特殊科學과 自己를 區分하고 잇는 以上 그對象이나 方法을 어느 特殊的인것에서 求하지안코 一般的 普遍的 究極的인것을 志向하고 잇는것이니 사람들이 哲學에 向하야 時容을 超越한 普遍的定義를 要求하는것도 決코 無理는 아닐것이다. 그래서 哲學 自體의 歷史우에서 그 一般的 特性을 찾지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學을 한개의 學問形態로서 部的으로 一致되는 定義를 求하고 잇다. 그러면 그것만은 可能할일인가? 定義를 비저내는 것은 論理學의 일이다. 그러대 普遍 論理學에 依하면 어떤한 槪念이 定義되기爲하야서는 그槪念은 바로 上位의 類槪念과 그事象의 他事象으로부터 區別되는 特徵 即 種差를 明確히 가져야하는 것이다. 例를들면 物理的 現象의 定義되는것은 그 直上位에 잇는 더 一般的 自然科學的 現象이 물론 一般 類槪念으로서 주어저잇서야하며 또한 物理學自體가 달은 科學、即 化學、生物學等과 明確히 區別되는 特徵을 가지는 때에 비로소 물리학은 定義될수 잇는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論理的條件은 哲學에 잇서서도 滿足될수 잇는것인가? 이것은 무엇보다 哲學의 上位槪念을 包括할 哲學의 上位槪念은 무엇일까? 그리고 哲學이 달은 學問과 區分되는 特徵은 무엇일까?

哲學의 上位槪念으로서 우리는 學問(Wissenschaft)을 들 수 있다. 哲學은 學問形態의 하나이며 學問가운데는 哲學만이 아니고 모든科學、藝術學等이 包括되여잇는까닭이다. 그러나 哲學을 學問形態의 한아로 보는데는 커다란 困難이 잇다. 歷史上의 哲學은 一般的으로 學問形態로서의 哲學이 아니엿다. 哲學이 學問의 類槪念에 包括되는 것은 哲學의 上位槪念이 學問과 不可能한 것이엿다. 그리고 哲學者는 藝術的、宗敎的인 非學問的 形態의 哲學—靈魂救濟의 哲學—을 要求하는 그 學問에 다르다. 또 이것은 觀念이 定義를 通하야 問題의 上位槪念도 困難하게 되는것이다.

學問의길
鐵木塔

學問의 內容이 그依存하는 社會的體制의 反映이라는 것은 이미 常識化한 事實이지마는 그內容뿐아니라學問의 形態까지도 그社會의 體制的反映이라는것도 事實이다. 가령 中世의 學問이 그內容에 잇서서나 形態에잇서서 手工業的이라는것이 特徵的 性格이라면 現代 市民社會의 學問은 어떠한 意味에잇서서든지 分業的이다. 그리고 이 分業的이라는 말은 專門化하엿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래서 事實 市民社會의 學問이 極度로 專門化한同時에 그個別的業績은 매우 놀라운地境까지 이른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學問이 이러케 專門化하는 同時에 學問과 常識이라는것이 사뭇 區別되엿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專門이라고하지아니하면 그것은 常識이라는 撰擬으로 되어버리고 이것은 아카데미시앙과 저-날리스트의 區別이라는 悖持를 잡게까지하였다. 이러한 例는 아카데미지 排他的으로 專門化한다. 一面 그 排他的인 時代 ……

專門化하는 그러나 學問의 專門化가 一致할 然科學者는 偉大한 哲學者 ……

나 社會學者의 일흠을 몰라도 羞恥로알지아니하면 안되겟다는것도 一部識者間에서 論議되는바이지마는 事實에잇서서 學問의 全體的聯關을 떠난 學問이란 다 고맙지못하게까지되엿다. 그것은 첫재 아카데미시앙들自身이 漸次로 저-날리스트로 轉向하는 事實이 이것을 立證하는것이지마는 近年 文學에서 배운 學問이 이 實生活에 비추어볼때 얼마나 無能한것인가를 도리켜생각해 본다면 더욱 明瞭한 事實일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專門을 崇尙하는 習慣을 버서나 學問의 全體的理解에 努力할 段階에 이른것갓다.

小文庫
趨庭錄(十七)
藥果와母酒
袋山生

高麗의 忠宣王이 元에 가서 잔채를 배플때 本國의 油蜜果를 썻다고하는데 이 油蜜果란 大槪 藥果의 種類일人것이다.

本來 油蜜果는 佛敎와함께조선에 들어 온 것이라 高麗는 尙矣라 勿論이요 新羅時代에도 이미 잇섯스리라고 推測된다。그러나 어째서 油蜜果를 藥果라고 이름지엇슬까。藥果의 藥字는 大體 무슨 意味일까。世上에서 傳하기는 藥峴徐瀯의 어머니 即 瀰齋 徐嵥의 夫人이 藥峴서 살앗는데 음식솜씨가 조코 그中에도 特히 油蜜果를 잘맨들어서 그後부러 油蜜果를 藥果라고 한다는 것이다。그 말대로 좃는다면 藥字는 곳 藥峴 徐氏네집의 油蜜果라는 藥字다。그러나 藥酒의 藥字와 藥밥의 藥字는 무슨 뜻일까。그역시 藥峴徐氏네집으로 因하야 생긴 이름이란 말가。丁茶山의 雅言覺非에는 『藥果者油蜜果之一名。謂之果者形變而名存也。星翁云。藥果謂之遁果。猶言假果。(東語凡非眞者謂之遁) 古者以蜜麪遁爲果子之形。或如棗栗。或如梨柿。名曰遁果。其後嫌其圓轉不能累高。改作方形。而果之名猶存也。今祭祀猶饌在果籩之列。按東語蜜謂之藥。故蜜酒曰藥酒。蜜飯曰藥飯。蜜果曰藥果。』라고 說明하얏다。藥峴徐氏네집을 云云하는 것은 한갓 後人의 附會에 지나지못하는 것으로서 丁茶山의 說明이 어데까지 近理하다고보인다。그러고 술ㅅ지겜이를 파서 다시 짜가지고 그것을 모주라고 하는데 漢字로는 母酒라고 쓴다。주는 酒字임에 틀림이 업스려니와 모을 母로 쓴다는 것은 그 意義를 解得키 困難하다。或者 말하기를 仁穆大妃의 어머니요 延興府院君 金悌男의夫人인 盧氏가 光海때 仁穆大妃가 廢位됨에 따라서 濟州로귀양살갓슬 때 귀양간 사람에게 주는 料食만으로는 到底히 살수가 업슴으로 술ㅅ지겜이를 어더서 모주를 맨들어내고 다시 그것을 팔아서 生活을 하야 간것이라 처음에는 大妃母酒라고 부르다가 後來에 大妃두字를 빼 버리고 그냥 母酒라고 부른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야기도 반드시 後人의 附會가 아니라고 主張하기는 어렵지만은 더 正確한 解釋이 硏究되기까지 그대로 들어둘수밧게 업는 일이다。그러나 漢字의 母는 煎煎한 食餌를 가르치는 境遇도 잇스니 禮에 『煎醢加於黍食上。沃之以膏。曰淳母』라고 하고 다시 그註에는 『母讀曰模。模象也。作此象淳熬』라고 하얏다。母酒의 母字가 淳母의母字에서 나왓다고 볼수도잇스나 그물건됨으로 미루어서 이와 가튼 高雅한 古典과는 關係를 맺기 어려웟슬人것이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十四】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하시요)

畫水公立水產學校

一、募集人員　約三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廿二日至三月二十六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釜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日至二月末日

一、試驗日字　自三月十八日至三月二十二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梁山蒲公立實科女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五日까지
一、試驗日字　三月二十六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科學에미치는— 中性子의作用 上
一記者

原子의 中心에는 原子核이잇고 그 周圍에는 陰電子가 一定한 軌道上을 廻轉하고 잇는 것으로 元素의 不變은 原子核의 不變에 基因되는 것이다. 이 原子核은 自然으로나 人工으로나 變換시키기가 不可能한 以上 宇宙에 存在한 原子核의 種類는 一定不變이라는것이다.

그런데 一八九八年 큐리夫人에 依해서 라디움이 發見되야 自然的으로 崩壞하야 가는元素가 잇는 것을 안後 元素가 永久不變한다는 생각은 고만 깨어젓다。어 라디움이 放射하는A粒子는 헤리움瓦斯를 充塡한것을 霧箱에 보이는 바와 가튼헤리움의 原子核이다。그런데 水素의 原子核은 헤리움의 原子核보다도 가벼워서 이것이 양子와 대단히 작은 原子核을 맨드는 最小成分이라고 해서 陽子라고 불른것다. 陰電子는 陽電子의 二〇〇〇分의 一쯤의 質量을 가지고잇다.

그뒤 一九三三年 라디움發見者로서 有名한 큐리夫人의 딸이렌ㅡ·큐리夫人(큐리·죠리오)夫妻는 A線을 부드치어 原子를 變換시키기에 成功하얏다. 이것이 人工的으로 原子를 變換시킨 嚆矢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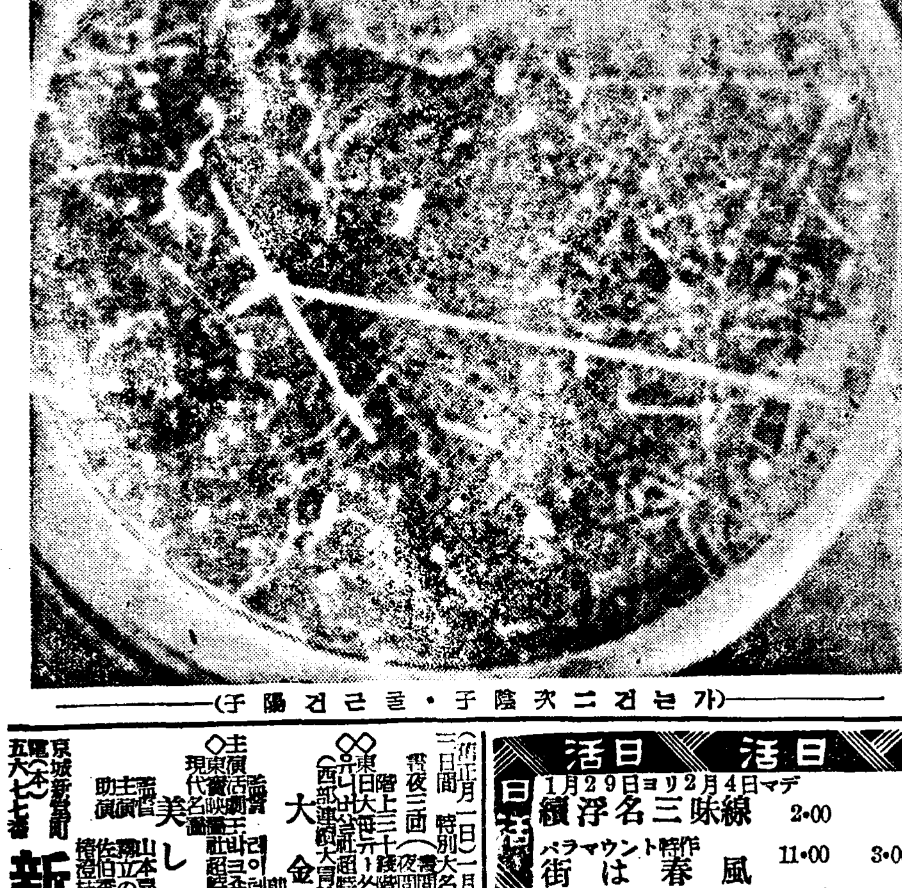
이 人工放射能의 發見은 人工의 母女가 한꺼 不滅의 學勳을 남기어 노흔것이다.

一九一九年 英國의 라사포드는 A粒子를 窒素에 부드치어서 窒素의 原子核을 變換하기에 成功하얏다. 이것이 人工的으로 原子를 變換시킨 嚆矢이다. 그러나 이것이 人工으로 B粒子를 맨들엇는데 이 窒素는 不安定해서 B粒子를 내노코서 漸次 炭素로 되야 가는 것을 알어 내엇다.

中性子發見의 端緖를 提供한 것이니 英國의 찰드윅(Chadwick)은 그를時에 中性子가 放射된다고 說明한다. 그것이 中性子의 存在를 提唱한 것은 一九三二年이다. 中性子는 그 이름이 보이는 바와가치 中性으로서 荷電이 업고 質量은 約 陽子와비슷하다.

여기서 原子核에 關한 생각은 新生面을 開拓하기에 이르럿다. 그뒤 中性子의 發生에는 a粒子를 베리리움에 衝突시키거나 重水素이온을 重水素에 衝突시키는 方法이 使用되고 이重水素이온을 加速시키는데 사이크로톤이 使用되야 잇다.

中性子는 中性이니까 磁場에서나 電場에서나 그 引力 斥力의 影響을 방지 안는다. 水素의 原子核과 大體 同等의 質量을 가지고 만흔 原子核과 比較해서 제일 가벼운 쪽이다. 어 가벼운 粒子가 多種의 무게를 가지고 잇는 多種의 比重의 物質을 通過하는 그모냥을 생각해 본다면 中性子自身과 가벼운 粒子에 衝突한때 便이 무거운 물건에 衝突한때보담 運動이 끈치기쉽다 마치 撞球板의 自黑의球를 때릴때自身과 同重量인 撞球에 부드치면 自身은 고만 때 運動을停止하고 그運動全部가 撞球로옴기어 가는것과 갓다. 그러나撞球가 自身보담 훨씬 무겁다면 아마 튀어서 돌아 와서 運動의 方向은 달러저도 그 運動은停止되지 안 할것이다. 이것은 撞球板의 球가 釘과 周圍의 板에 부드치는 것을 보아서도 곳 알수 잇는일이다. 中性子도 同樣으로 自身과 同等의 質量에 가장停止 되기쉬운것으로 무거운 粒子에 부드치어서 運動의 方向이 달라질지언정 좀처럼停止되지안는다.



(가는건 二次陰子·플근건 陽子)

支那出土의彩色土器

黃金座　日活
1月29日ヨリ2月4日マデ
續浮名三味線　2·00　6·30
パラマウント特作 街は春風　11·00　3·00　7·30
京日朝日ニュース　12·30　4·35　9·00
崔承喜主演 大金剛山の譜　12·50　5·55　9·20
暖房完備

團成社　電光九九五番
東和商事提供映畵 山路ふみ子主演 ◆母よ安らかに◆
新키네마特作品 ◆항가리夜曲◆
虫憨마르타·엣게르트主演
朝鮮키네마超特作品 ◆靑春部隊◆ 洪開明監督作品
◆東日、大每國際뉴―스上映◆
今週映畵 自一月卅一日至二月四日
舊正第一週特別大興行 階上階下共五〇錢、三〇錢均一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東寶映畵 大金剛 ……
日活超特作全發聲映畵 ……
主演 美しき鷹 ……

明治座　松竹キネマ
1月28日ヨリ上映プロ時間表(2月3日マデ)
極樂モダン騷動 11·00—11·19 2·45—3·04 6·40—6·59
噛みついた花嫁 11·21—12·12 3·09—4·00 7·03—7·54
ニュース大地豫告 12·17—12·47 4·05—4·35 7·59—8·29
第七天國 SeventhHeaven 12·50—2·30 4·40—6·20 8·34—10·14
次週豫告 4日ヨリ8日マデ 大地=新家庭曆=9日ヨリ13日マデ 沈默の愛情

若草劇場
一月廿九日より五日間
花東の夢 7·00 3·55 12·55
大朝大每ニュース 8·20 5·10 2·10
大森林 8·40 5·30 2·30 11·30
ワーナー作品 松本一の丘 …… 天ぐ藏に海を
演主 原節子 …… 色彩映畵 決死の ……

桃花劇場
舊正月一日早朝 特別映畵 …… 二月二日까지
男の街 主演 藤田進 ……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帝の密使 主演 …… 史劇名品 ……

娛樂

內容만健實하면 洋畫輸入許可說
벌서몇개는파스되여

洋畫輸入問題는 獨佛의 쿼ー터ー·시스템을 參考로해서 一個年百本을 限度로하고 所謂『條件附輸入制』가 實施되리라고·보고잇섯는데 該案의正式決定을 보지못한 現在에잇서서는 어떠한가? ——『期限附輸入不許可』채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는 하엿스나 當局으로서도 日本支社와 洋畫配給社의 經濟狀態를 考慮해서 그것들이 存續해 나갈程度로 新作品의 輸入을 許可하게는데 但 이러한 境遇에 잇서서의 檢閱方針은 頗히 嚴重히해서 日本의 現下國情에 어떠한意味로서든지 有益한 文化的內容을 가진것에 限定되여잇다。그래서 이러한 審査에 파스되여『暴風雨』『졸란』『戰友』『征服』『北京의 最近』等이 最近 着荷되여 잇음으로 今後도 內容健實한 大作은 相當히 輸入할수잇는 情勢가到來하리라고한다

一年間檢閱件數 四萬一千五百件

十二年度 內務省필림檢閱은 二十八日로서 매금을햇는데 本年은 뉴ー쓰映畫의 檢閱申請이 激增한때문에 總件數 實로 四萬一千五百六十件이되엿다。이중에서 뉴ー쓰만이 一萬千餘件이되고 이것을 除한外의 興行映畫는 約三萬件으로서 大正十四年에 統一檢閱을 實施한以來 最高記錄인 十一年度의 二萬五千八件에 比해서 一萬六千件의 增加가된만큼 映畫界空前의 大盛況이엿다。

뉴ー쓰映畫 뻬스트·텐
首位는『日支事變』

파라마운트·뉴ー쓰의 編輯長 A·J리챠ー드氏는 一九三七年에 잇서서 가장 注目할만하고 또한 意義잇는 大事件으로서 다음가튼 興味잇는 뻬스트·텐을 發表하엿다

(一) 日支事變
(二) 獨逸飛行船힌덴브룩號의大事
(三) 英國 죠ー지陛下의戴冠式과 에드와ー드陛下의御退位
(四) 시카고의暴動과自動車罷業
(五) 윈저ー公의結婚
(六) 루즈벨트大統領의就任
(七) 米國中西部의 大洪水
(八) 西班牙의動亂
(九) 米國高等法廷의紛爭과 브락크의 就任
(十) 텍사스의 學童二百名災死

新劇團體인『浪漫座』出現

近來 劇團은 雨後竹筍가티簇生되여 일즉부터 劇界에 關心을 生하는데 어러한 機運에 刺戟을 가지고잇든 少壯演劇人들이 서로모혀 新劇團『浪漫座』라는것을 組織하엿다는바 이제 同劇壇의 趣意와 部署를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趣意

現下劇界를 一括하야보면 所謂興行劇이니 中間劇이니하는 曖昧한 演劇의 侵蝕으로 작은려든新劇은 衰退하고말엇고 그低迷低調는 이제 그極에 達한感이 업지안습니다。

어때에잇서서 喪失된 演劇의 純粹性을 奪還하고 墮落된 新劇의 藝術性을 擁護하고저 젊은 演劇人면은 浪漫座의기人발아래 모혓습니다。

어제 浪漫座는 最限量의 情熱과 努力을바처 新劇今後의運動을 두어개우에 지고 實踐과 理論을 通하야 오직 新劇樹立의 一石이되려합니다。

臨時事務所
京城府慶雲町九六
浪漫座一同

▲經理部=閔泰奎 安東洙 吳章煥
▲演出部=金 旭 金英輔
▲文藝部=秦雨村 朴鄕民
▲美術部=李秉玹 徐永福
▲演技部=兪日俊 崔景峰 楊薰 卞一路 朴淵 趙鏞範 朴學 宋在魯 尹英根 金素英 梁淑善 河英珠

셀즈닉크動向과 유社、메트로의關係

데비드·O·셀즈닉크는 메트로와契約하고 스사로 유나이텟드에서 二年半 十八本의映畫를 製作하기로하엿는바 그作品配給의條件이 容納되지안흘때문에 이契約은 調印되지안코 目下空文書와가티되여잇다。

셀즈닉크는 그作品은 個個에 그價値를달리해서 配給價格을 決定하려고하나 메트로側은 統一的으로 取扱하려고 主張하고잇서 交涉은 決裂의 狀態가되고말것이다。셀즈닉크는 이商談을 一時中止하고 目下 그는 유나이텟드·아ー티스츠에 配給할 最後의二映畫『젊은 心臟』及『新聞記者』의 製作에 沒頭하고잇다。메트로와 決裂狀態가되자 유나이텟드는 年中二十四本 製作의條件으로 셀즈닉크와 契約延長을 懇請하엿다 어떠튼 實收가 不成立에 마친以上 셀즈닉크의 유社留任은 可能性이 濃厚하게되엿다 그러나 메트로의 루이·B·메이어는 依然 셀즈닉크의 메트로入社를 希望하고잇슴으로 셀즈닉크의 進退는 目下 어떠케될까가不明이다 그리고 이것은 餘談가트나 셀즈닉크가 메트로로 드러가느냐 유社에 남어잇느냐에 따라서『바람과 가티가다』의 렛트·바틀러ー의役은 클라ー크·게ー블이되느냐 게ー리ー·쿠ー퍼ー가되느냐 또는 로날드·코ー만이되느냐하는데 매우 興味가잇는일이라고한다。

커트說明
아니타·루이스

支那音으로된 米國俳優일흠
그대로한번읽어보시오

戰亂의 大旋風에 한번지나간上海의 興行街는 엇더한가? 第一 繁昌한 英、佛租界의 常設館들을 살펴보면 一流館以下各館이 모두 大繁昌을하고잇는데 그프로들을보면 支那譯으로된 映畫題名과 스타ー들의 支那擬音으로된 일홈이 매우 재미나는 것이다

(1) 南京劇場ー陣晩一切一年滑稽長片傑作、勞來哈萊(로레르·하ー듸ー)『招財進寶』(寶의山)(加映) 滑稽短片五彩美麗誘畫『米老鼠』(밋키ー·마우스)

(2) 大上海劇場ー曼絲琳卡洛兒(마데린·캐롤) 佛蘭錫斯李德(프란시스·레데러ー)

(3) 大光明劇場ー 秀蘭鄧波兒(쇠ー리·템플) 麥克勞倫(빅터ー·마크라그렌) 賈來古柏(게ー리ー·쿠ー퍼ー)之前作『怒海英魂』

(4) 國泰劇場ー風依浪漫滑稽綺艶香艶熱情巨片、美明凰 張琳黛

珍스냅三題

테니스와 스크린

어엽분 英國의 테니스·프레이어로 널리 알려저잇는 카사린(케인)、스티마ー스가 今番허ー리웃드의할·로ー치·스타듸오에 招聘되여서 映畫界에 進出하기로되엿는데 그스크린·테스트를 바덧다 어스냅은 그테스트의 結果가 엇더케되엿나하는것을 보려고자못焦燥한가슴을참으면서 그랑슈를보고잇는 彼女이다。그런데 彼女가 映畫界에 進出하게된것은 그親友인 콘스탄·베네트의 推薦에依한것이라고한다。

夫妻同席의 카렐·파ー틔

프랑크·보가ー의 映畫生活二十年되는것을 祝賀하기위해서 지난 三十七年 十一月二日을 期해서 카렐·파ー틔가 열녓는데 栗林의 有志들이 모혀 歡談의 하로밤을 가젓섯다。그때 롯트·라로크와 쟉크·오ー키ー夫妻는 오래간만에 한자리에서 모혓다。

라무어와 프레미아

사뮤엘·골드윈·프로『颶風』(존·포ー드監督、도로시·라무어主演)의프레미아·쇼ー에나가려는 瞬間의刹那이다。도로시·라무어와 찰스·락크아ー서ー두사람

監督協會賞 授賞決定
當選은『限업는前進』

日本映畫監督協會에서는 昨年度優秀映畫 演技者 技術者의協會賞授賞者의 決定을하기위해서 監督諸氏外 三十六名이 出席하여 明頭 昨年來로協議의 오린 選出方法을 새로 決定하기로하고 一、오리지날한것(監督을 映畫人의 손으로만 完成된것)에 限하지안코 原作物(一般小說戲曲等)의 映畫化한것도 加해서 投票하는것이 可하다 一、投票作品은 同一作品이아닌限 一人이 몃本이든지 投票할수잇다 一、投票作品 一本을 一點으로計算하고 無記名으로한다 等을 決定하고 選出投票를 行하엿다 投票는 主要한 作品은『限업는 前進』『바람속의아해』『젊은사람들』『蒼氓』『大阪夏의陣』等이며『限업는前進』이 壓倒的投票數를 가지고서 作品賞을 獲得하엿다 演技賞은 齋藤達雄、市川春代等 二名、技術賞은 山田順次郞(日活束山) 一名、그리고 集團演技賞은 前進座一黨으로 決定되엿다

自力主義로 新響轉向

新響은 昨年前半期까지는 定期公演에 海外樂人의 獨奏獨唱을 加하고잇섯스나 事實外樂人의 來訪도 杜絶되엿슴으로 演奏에 힘을 쓰기로되엿는데 프로그램編成上 不足가잇슴으로 먼저 소프라노 二月의 定期公演에 參加하고 從來의가튼 外來樂人依存主義를 버리고서 自力主義로 轉向하리라고한다。

토ー비스 필림·쿤스트社 새로히設立
◇…會長은에밀·야닝스…◇

토ー비스社는 파렌트와 라이지날한것만을 投票하는案에 一任의 問題부터 合理的인 組織으로부터 興味가잇서서 選理하기위해서는 名目下에 製作配給의 事業을 新設의 토ー비스·필림쿤스트社에 移讓하엿다 卽 토ー비스社는 一個의 特許會社가되고 그 實際의 事業은 今後 토ー비스·필림쿤스트社가 行하기로 決定한것이다 新會社토ー비스·필림쿤스트社의 首腦部는 파울·레ー만氏를 社長으로 구스타브·베르트ー겔氏를 配給部長으로 한스·하ー!쓰렛트、프란쯔·포ー겔兩氏를 製作責任者로 任命해서 形成된것인데 重役會에는 한스·헨젤氏 에밀·야닝스氏 하인리히·포스트氏 아ー놀드·레ー더ー氏 위ー리·폴스트氏 파이트·하ー란氏等이 選任되고 다시 그藝術委員會는 야닝스氏를 會長으로 폴스트·하ー란、레ー만諸氏에 依해서 構成되기로 決定되엿다。

銀幕에도나타난 蘇聯의肅淸工作
製作部長以下幹部들 트로츠키ー事件으로被逮

蘇聯의 肅淸工作은 映畫界에도 波及되여 먼저 聯邦映畫工業本部長 슈미야키ー氏의 罷免이 傳해진以來 蘇聯各紙는 連日 蘇聯의 映畫界가 一般的으로 그計劃案을 實行하지안코 多數의 俳優監督의 脾肉의嘆을 견듸지못하는것은 그原因이 幹部의 怠慢에依한것이라는것을 摘發하고잇섯는데 맛참내 레ー닌그라ー드에서 蘇聯最大의 레ー닌그라ー드·필림製作所(렌필름)는 트로츠키ー事件에 關聯되여 整理를하게되엿는데 製作部長 로ー센탈트氏 其他五名의 幹部는 逮捕되엿다。

放送

一日(火曜)

◇午後六時 라듸오學校『格言이야기』 全尙鎭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國語 咸潤默
◇同七時四〇分 講演 資源과그… 代用 高工敎授 安東赫
◇同八時一〇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羽樂 四、界樂 五、編
◇同八時三五分 洋琴 大笒 杖鼓 唱劇調 金文明 金貞一 金永相 金宇根 金玉仙
◇同九時 野談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童話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東) 唱歌
◇同七時四〇分(自大津)
◇同八時一〇分(東) 時局講
◇同八時三五分(大) 漫才
◇同八時五五分(大) 義太夫

二日(水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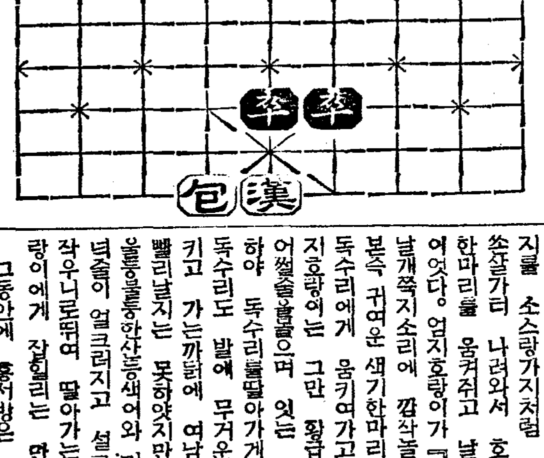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放送『蒸包子』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 一、 二、唱劇 大丈夫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
◇同六時『婦人과科學』(一) 兒童의時間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同七時四〇分 講演『時代精神』
◇同八時 中學放送 金斗憲
◇同八時三〇分 一、풀냥 二、뒤山打鈴 三、 四、 五、긴난봉가
◇同九時 野談『夜光珠』
第一放送
◇午後○時五分(東) 講談
◇同六時(城) 하ー모니카
◇同六時二五分(東) 支那語
◇同七時三〇分(東)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賀茂梁
◇同八時三〇(仙) 琵琶
◇同八時五五分(東) 浪花節

三日(木曜)

◇午後○時五分 俗曲
◇同一時一五分 (一)『婦人과文學』 毛允淑
◇同六時 젊은軍艦 一、산울림 二、名唱 三、기다리는봄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同七時四〇分 講演『書道에對하야』 李漢福
◇同八時一〇分 歌謠로만스(一) 꽃을잡고 金岸曙作 二、잡아도가는님 三、
◇同八時三五分 (釜)朝鮮民謠 一、片時春 二、伽倻琴併唱 三、春香白頭歌 四、農夫歌 (河、崔、崔)合唱
◇同八時五五分 野談 張志浩

◀수는기이이漢▶

漢이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수는 明日紙上에 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 풀어보십시오 (博譜係)



◇博譜大集 75【問題】

【實話】 九死一生 (上)
石金灘

이것은 나의고향인 구성(龜城)에서 나와가티자라난친구 홍윤제(洪允濟)군의 할아버지가몸소 당한 사실담이다。

산이 하도놉고 골이 하도기퍼서 하늘에서 나려오는 청동리란듯으로 천지골(天地谷)이라고 불으는 산골삭이에는 십여호의 농가가 여기저기 떠엄떠엄 떨어저잇다。그중에서도가장마바지에잇는 오막사리에사는 홍사청(洪思淸)이란농부는 어동리에서 담기잇고기 운세기로첫재가는 정운이엇다。

어느해 여름 사흘을 연다라 주룩주룩 쏘아지든 장마비가 개이고 오래만에 은가루빗처가튼 별 하늘이보이는 밤이엇다。나제 개울잡아서 탁주에홀로 마냥먹고 초저녁부터 옷입은대로 한편발치에 드러누어 쿨쿨자고 잇든 홍서방은 한밤중에 잠이 깨여 오줌을누라고 뒤깐으로나갓다。뒤깐이라야 군데군데 개구녁이뚤녀잇는 낡고 작은 싸리울타리 한편모퉁이를 우묵하게파고 발판으로 굵다란 통나무 두개를 가로질러노흔것이엇다。홍서방은 아즉도 술과 잠이 몽롱하여 한손으로는 울을붓잡고 한손으로 잡방고 어허려 오줌을 다누자마자『휘』하는소리와 함께 홍서방의몸은 공중에 떠서 울타리밧으로 날려넘어갓다。올타 게슴어안저 동정을 엿보든호랑이가 한번가리 달려들어 홍서방을물고 울타리를 뛰여넘은것이엇다 별안간에 호랑이가달려드는서슬에 홍서방은 그만끽소리한 마듸도 못지르고 정신을일헛다。호랑이는 정신일흔홍서방을 맴섭게 물고 산속으로 산속으로 다라낫다。

홍서방을지나고 잘풀밧을 지날때 차이슬이 수업시 홍서방의 얼굴을스첫다 홍서방은 호랑이에게물려가면서 정신을 회복하엿다 그제는 자기가뒤깐에 나왓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중임을 알엇지만 어찌할도리가업섯다

호랑이는 그냥 그냥 산속으로기어들어가드니 어떤 바위우에 홍서방을 털석 노앗다 홍서방은 죽은드시 숨을죽이고 엎드린대로 실눈을떠서 살펴보니 벌써 훤ー하게밝은 새벽이되엿는데 그곳은 범의굴(虎窟)아페엇다 호랑이가 무엇이라고 으홍거리는 굴쪽에서 고양이만큼식한 새기세마리가 나오는것이엇다 멍치가 소만큼이나되는엄지호랑이는 그날카로운발톱으로 홍서방의 엉덩이를 축축할키드니 새기를 불러대여 피를 빨아먹게하엿다 홍서방은 뼈마듸가 욱으러지는듯한 아픔을 참고잇는데 엄지호랑이는 몸을날려두어걸음나되는 바위등에 뛰여올라 가장 상쾌한드시『어흥!』소리를 지르는것이엇다。

홍서방은 어둠의굴고 아픔을 참으며 죽기를기대렷다 그러나『호랑이에게 물려갓서도 정신만 똑똑하면 살아날 도리가 생긴다』는 것은 이를두고 한말인가?

범의굴아페는 하늘홍공에 노괴소는 잣나무(柏)가잇는데 그우에는 커다란 독수리(大鷲)한마리가안저 아래를 노려보며 호랑이새기를 움켜갈 기회를 엿보고잇섯다 독수리는 호랑이새기를 홈처먹기를원하야 호랑이굴을 알게되면 언제든지 가까이 (숨어)돌며 호랑이새기를홈처먹을 기회를엿보든 버릇이잇는것이다。

엄지호랑이는 바위등에 멀죽이 뛰여올라 장쾌한듯이『어흥!』『어흥!』소리를 연겁허질으고 새기호랑이들은 홍서방의 엉덩이를 빨아먹고 뜻어먹기에 정신이팔렷잇는 이동안이야말로 나무가지에서 노리는 독수리에게는 가장조흔기회이엿다。독수리는 다시 두번 맛나기어려운 이 기회를노치지안코 두날개쪽지를 소스랑가지처럼 떠벌리며 쏜살가티 나려와서 호랑이새기 한마리를 움켜쥐고 날아가는것이엇다。엄지호랑이가『휘』하는 날개쪽지소리에 깜작놀라 바라본즉 귀여운 새기한마리는 벌서 독수리에게 움키여가고잇다。엄지호랑이는 그만 황급지급하야 어쩔줄을모르며 잇는 용맹을다하야 독수리를딸아가게되엿다。독수리도 발에 무거운것을 움키고 가는까닭에 여남은때처럼 빨리날지는 못하엿지만 그래도 울퉁불퉁한산등색이와 머루 다래 넝쿨이 얼크러지고 설크러진 골작우니로뛰여 딸아가는 엄지호랑이에게 잡힐리는 만무하엿다。

그동안에 홍서방은 벌떡일어나서 고양이가튼 호랑이새기두마리를 바위우에홀려메치고 깨밟아죽엿다。그러나 오래잔하 엄지호랑이가 돌아올것이며 또는 엉덩이에서 피가흘으고 허릿떼디에 힘이업서 도저히 걸어서 도망할수는업섯다。그래서 하는수업시 죽을기운을 다내여 금전에독수리가안젓든 잣나무로 기어올라가기를 시작햇다。여름의 압흠고 젓먹든힘을다써서 겨우겨우 네다섯길가량 기어올라니 다시는 더올라갈수가업섯다。팔다리는 맥이빠저서 벌벌떨리고 몸뚱이는 기진맥진하야 휘돌녀저 금방 독떨어질것갓다。홍서방은 최후의힘을다써서 허리띄를 버서 여프로뻗은 나무가지에삿 착구니를걸치고 몸뚱이를 허리띄로 나무와한데 비끌어매여 텅시처도 떨어지지안토록 하엿다。

心臟이弱하고
動悸와숨갑붐
喘息·高血壓
으로辛苦하는분은

이미 身體의中樞가病에 侵害되여잇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身體의 中樞에 元氣가붓는 治療를해야합니다 特히寒節에는 內藏호르몬이 不足해서 抗病力이 한層衰弱해지는것이니 호르몬動物로서 自古로 重用된雲南麝香、犀、熊膽、精膽으로 精製한 救心을 服用해서 內藏을속속드리 元氣잇게하는것이 第一效果的인 健康法입니다。理論보다 證據、心臟과 肺、肋膜이나뿐분、胃腸이弱한분들이『救心』으로 健康을 恢復해서 眞心으로 感謝하고 잇습니다 目下實驗을 爲해서『救心』二日分無代進呈합니다 곳 申込하십시요

『救心』은內藏에잘同化해서抵抗力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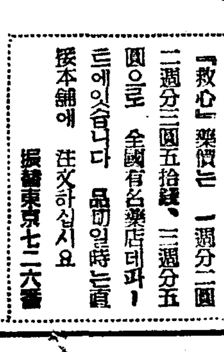
心臟이健全해지고喘息이나어

岡山市天瀨百 增岡忠勝樣

謹啓 先般新聞廣告에서貴藥『救心』의效力을알고 當市本町加藤藥店에서 一週間分식사서服用하엿삽든바그 禮分으로持病이든心臟衰弱으로생긴喘息이아주快해저서이제새살스러히『救心』의效力에 질거움과함께感謝를드리는바 엄니다 簡單히感謝의말삼에代코저합니다 怱怱

全身이더워지고추위에안진다

『救心』은內臟을속속드리든든케하고호르몬分泌와 血液의循環을活潑히하므로 心臟이 弱하고 貧血이되여겨울의추위가 뼈속까지숨어들면치가 厥合한분들은 꼭 하로에 一粒식『救心』을服用해서든든케元氣잇게겨울을보내시기바랍니다



『救心』藥價는 一週分二圓 二週分三圓五拾錢、三週分五圓으로 全國有名藥店에파ー드에잇습니다 品切일時는直接本鋪에 注文하십시요 振替東京七二六番

貴重動物精膽藥

効力잇는症狀

◇心臟病으로苦痛하는분
◇肋膜과肺가나뿐분
◇胃가弱하야食慾업는분
◇心臟이弱해서動悸와숨찬분
◇肺가弱해서熱과기침나는분
◇盜汗으로밤에苦痛하는분
◇神經痛으로手足알는분
◇心臟脚氣로苦生하시는분

無代進呈
「救心」二日分

目下『救心』二日分과『心臟의手當と食養生』을 一人一回에限하야藥書로申込하신분께無代進呈합니다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三丁目二七
申込은 堀救心本舖

中部版

舊正을마지한 仁川市街殷盛

【仁川】전조선적으로 구력(舊曆)페지를 주창하고 잇는이때에 인천에서는 도리어 구정(舊正)기분이 팽창하야 지난삼십일일(舊正一日)은 부내각공장파조선인영업소는물론 부두인부까지도 전부휴업하야 각기선회사에서는 부득이 작업을 휴지하얏다하며 그리케 복작하든 시가와하마차(荷役場)도 일대의 자태를볼수 가업고 부내는 전부가 구정기분으로 구역폐지를 주장하는이때에 홍잡해서는 폐지되기가 어려울것이라한다

一個年間의酒造量
二萬千五百九十餘石
酒稅額은八萬六千八百餘圓
洪川麟蹄兩郡內에서昨年末現在集計

【洪川】홍천세무서관내인 홍천 린제(麟蹄)양군내에 산재하야잇는 주류제조허가자수는 작년팔월말일 현재로칠십륙개소이라는데 십일년수조년도와 작년팔월까지에 제조한 각종주류총석수는 이만일천오백구십여석이에 반하야 주세액이 팔만륙천팔백팔십여원이라는바 양개군내에 산업부문중 가장중대한부문의하나로 더욱가속도로 발전할여망이잇는 양개군에주조영업자는 후자에호자를 볼것이라하며 농촌에서 애음하는이만큼『막주』는 특히파기록적 석수에달하며 근래홍천읍 회원등은 연말연시에 만원의 개가를불러오는 이만치 각종주류소비도 이에따라 팽창할것이며 주류당업자는 의기가양양하야 백인다는바 면내각종주류조석수와 세액은 다음과갓다

(昭和十二年末日現在)

(酒類製造石數)濁酒一萬九千九百石 藥酒一千三百九十九石 燒酒二百八十四石 計二萬一千五百九十石

(酒稅)濁酒六萬七千六百九十圓 藥酒一萬七千六百八十圓 燒酒一千五百十四圓 計八萬六千八百八十九圓

工業者大會를압두고
工業振興에邁進
仁川工業俱樂部總會決議

【仁川】기보한바와가티 인천공업구락부에서는 지난이십구일오후여섯시에 인천공회당에서 정기총회를열고 가등(加藤)의원장의 개회사가 잇슨후 도변(渡邊)특별회원으로부터 소화십일년도사업보고와 동십이년도수지결산보고가잇슨후 금년륙월에 인천에서 개최될 전조선공업자대회에대한것을 신중히협의하고 공업구락부로서 항도인천의 공업진흥의능률을 발휘하기 위하야 종전에다시며반게아니되든 의원을 십오명으로 증원시키기로결정한후 동여덟시삼십분경에 폐회하엿다한다

優良兒童表彰
金浦公普校서도

【金浦】김포공립보통학교 에서는 지난이십륙일 오전아홉시삼십분부터 경기도 장학기금사업에의한 우량아동표창식이 잇섯다는데 이번에표창을바든 아동은 동교륙학년생 김락헌(金洛憲)(一六)으로 성적이 우량할뿐아니라 일학년부터 만륙년동안 하로도결석한날이업섯다한다

楊平普校生表彰式

【楊平】지난일월이십일일오후한 …

생도는 일이년부터 륙학년까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하야 타우동생으로 종용할거되는아동이라한다

楊平郡楊西面梧水里 大學年(男) 具龍顏(一三)
同郡楊平面 大學年(女) 辛永順(一三)

알뜰한開城살림
燃料갑도極度로節約
五市場에서比前年八萬圓減

【開城】개성만여호 장안에서작년일년간 아궁으로 살어진 연료갑이 얼마나 되나하고 부내오개소 시탄시장의 통계표를모아보니 그중액이 삼십삼만이천륙백륙십사원이십오전인데 이것을 전년통계인 사십만삼천사백삼십일원이십오전에 비하면 팔만칠백륙십칠원이란 놀라운 감액을 보엿다 호수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의진도시에잇서 이와 반비례로 전기와가티 연료비가 격감되엿다는 기현상은 사변이후 각종물가그와함께 나무갑도 오、폭등이나 폭등하는바람에일반가정에서는 연료절약관념이극도로 농후하야 두방불하든집이 한방불두—그도아니면 남대문신『통겨』를 사다때는집이 만허지것이 한원인이며 또는과동할여유가업는 세궁민들이 사서때든나무를 못사때고 남의산에가 잔듸도 뜨더다 때는 사람이 만허진것이 한원인이니록 만부민중엔 지난한겨울 냉돌에서 새우잠으로 지내온 사람이 만헛슬것도 능히 추측할일이다 그런데 일년간전기오개시탄시장의 매상고를보면 다음과갓다

高麗町市場‖[illegible]
元町市場‖[illegible]
宮町市場‖[illegible]
京町市場‖[illegible]
本西町市場‖[illegible]

京城에서仁川까지
娼妓와드라이브
仁川署에서逮捕留置

【仁川】유흥에도취하여 유곽창기(娼妓)와 인천으로온것이 결국은 류치장신세‖원적을 산구현도농촌대진도촌마도(山口縣都濃村大津島村馬島)에두고 현주는 경성부황금정오정목(京城府黃金町五丁目)에잇는 고성호(古城慶ㅇ)은 지난삼십일오후다섯시경 미생정(彌生町)유곽루가기 각국빈자(角谷濱子)(二八)를 동정에잇는『오가메』식당에서 불러내여 한강(漢江)택시로 일로(一路)인천으로 질주하여서 인천부본정(本町)사정목 추곡모(槌谷某)방에 잠복한것이 인천서에 탐지되여 류치취조중인데 지난삼십일일 전기여자만 석방시켜금파루로 보내후 고성호는수상한점이 만흐므로 계속취조중이라한다

時局巡回講演
楊平郡廳主催로

【楊平】현하시국의 중대성에비추어 양평군에서는 금차제국정부가 금후에대한 대지태도(對支態度)를 중외에공표한바 이에 일반민중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자 지난일월이십사일 양평군청회의실에서 관내면장 급공립보통학교장을 집합하야 협의(協議)한후 군수로부터 먼저도지사회의 …

合格된犬皮갑슨
一枚에一圓半!
楊州郡만八百五十枚
오는廿日까지各面에서受理

【楊州】견피(犬、猫、兎)등모피를 군농회(郡農會)수총으로 구입함에대하야는 이미자세히 보도되엿거니와 양주군내에 배정된머리수가 팔백오십두라는데 규격(規格)에 합격된 견모피(犬毛皮)일매에대하야 일원오십전식에 각면에서알선하야 구매키로 되엿다하며 복한경중에대하야는 상당한가격에 매매알선을 하다는바 오는 이월이십일까지 각면에서 수리하다

規格(標準)
一、朝鮮犬皮로 服裝時期 十一月下旬으로 翌年二月까지의 …
一、毛質 …
一、皮質
1、組織이 粗하고 破損이 업슬것
2、血痕 日燒 脂肪燒等의 痕跡이 업슬것
所가업슬것
3、多量의脂肪의附着치안흘것
4、一枚의面積은〇、二五平方以上으로할 標準에따라〇、二三平方米도無妨

軍需工業下請負의
仁川工業組合出現
關係當局서도準備

【仁川】전조선각도시에 군수품(軍需品)미간청부공장을 가진곳은 맹렬히연구를 거듭하여왓는데 공도인천으로서 매출각공장과 대회안중에잇든 인천부에서는 판게공장의 시찰현파업자민간임체로서 조종연구중에잇섯스나 종래에확고한 각공장의 통제기관이업시 개인수의로 지나왓든 판게상 업자간에 긴밀한 연락이업슴으로 공업인천의 발전에 다대한영향이 만햇고도 군수공업의 하청부(下請負)에도 협동일치하기위하야 요사이 인천공업조합의 통제기관을 조직하려고 인천부에서는 착착 준비중이데 머지안흔장래에 그실현이 보이리라고한다

二百藝娼妓中
花柳病六十名
開城花柳巷集計

【開城】소위일등은 예기(藝妓) … 라해서 표면으로는 가곡을팔지만 내면으로는정조도파는 오늘의 기생들—때로는 이들의 몸에진 … 인 무서운화류병에 예방구축하기위하야 개성에는없의이 잡기와관게 검매제(檢黴制)가 엄연히 실시되여가지고 한달에네번식 종기사를 해왓섯는바 이를 흥분한중에는 정말이 노흥이 진저리 남치고 검사제 젤페문제를 주장하는 기생도 잇섯스나 그래도 개성은 오늘날 엄연한 검사제가 잇섯기 때문에 타지방보다 화류병이 비교적 적다는것은 작년 일년간 통계가다웅파 가티 증명한다 즉작년일년간 개성서 위생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내 백오십명(內地人까지포함) 기생중화류병에걸린 기생이 겨우삼십삼명 정조를생가부치고파는 오십명의 창기중엔 삼십일명—합계 륙십오명의 화류병환자가잇섯다한다 그런데 이것의 병명을 구별해보면 다음과갓다

梅毒患者‖五一名 痳疾患者‖一一名 橫痃患者‖二名 計六十五名

船員上陸을機會로
船中白米를窃取
舊年末警戒의收獲

【仁川】지난이십칠일오후열시경에 부내항정(港町)이정목근처에 구녀말경게중이든 인천서원이 행동이수상한자를 발견하고 즉시본서로 데려다가 취조한결과 그는원적을 부천군북도면모도리(富川郡北島面茅島里)에두고 조일환라부(龍夫)겸업 송금석(宋金石)(二〇)으로서 선원들이 상륙한틈을타서 적재중인 백미한부대를 절취하야 필자리를치저서 배회중 체포되엿다는데 여죄가잇슬듯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開城의食料品消費
五十三萬五千圓
肉類와野菜가比等히需要
兩大市場의昨年集計

【開城】개성부내 이대공설시장 도교와당교(都橋市場、堂橋市場)에서 작년일년간 홍정된 일용품소비고가얼마나되나하고 조사해보니까 오십삼만오천오백여원으로 이것을 삼일년도인 삼십팔만일천삼백여원에 비하면 십오만사천여원의놀라운격증을보엿는데 그원인은 전년에는 수차군대의 숙박이잇서 례외로매상고가 늘게되얏든것이라는바 각종일용품중 제일 매상고가 노픈것이 육류(肉類)로써 그가격이 삼십일만칠천칠백오십여원이며 그다음 채소류도 십일만칠천백오십팔원이란 비등한 수자로 소비되얏다 이가티 육류채소류가 거의 동액으로 소비된것을생각컨대 개성부민은 이상적 식사를한다는것을 명료히 알수잇다 그러데전기 양대시장의 매상고를보면 다음과가튼 엄청난차이가난다

都橋市場‖四三八、三三六、四〇錢 堂橋市場‖九七、二六五、一〇錢 計五三五、五〇一、五〇錢

全仁川氷上競技의
優勝은飛虎팀에
個人優勝者는朴賢民君

【仁川】기보한바 인천체육회주최 제이회전인천빙상경기대회는 지난삼십일오전열한시부터 인천송림정(松林町)『링크』에열리엇는데 이번에 참가선수는 오십명에달하야성황을이루엇는데 정각에 부회장홍재범(洪在範)씨의개회로 작년제일회대회에서 백운(白雲)팀이 점령하엿든 우승『컵』의반환이꼿난후 경기를시작하엿는데 그성적은아래와가트며 작년에백운에게 한대를당하엿든비호(飛虎)『팀』이 일천칠백오십메돌의우승『컵』을점령하엿스며 일반경기로는 박현민(朴賢民)군이 일만메돌에 제일착을하엿다한다

◇一般部(五百米) 1李國星五八秒六 2金根培五九秒二 3李禎遷一分一秒
◇一般部(一千五百米) 1朴賢民三分十二秒五 2金根培三分十三秒二 3李國星三分二十三秒
◇一般部(五千米) 1朴賢民十分五十六秒 2金和鎭十一分三十八秒 3金根培十一分二十八秒
◇少年部(三百米) 1金京泰四二秒 2梁應柱四十三秒七 3李桂洪四十四秒六
◇少年部(리레對抗) 1韓亨成(永化里)二分十七秒五 2金命鎭(博文學校)二分二十九秒
◇一般部(一萬米) 1朴賢民二十四分二十六秒七 2禹鋪植二十四分四十九秒 3李禎遷二十五分十七秒五
◇少年部(五百米) 1金京泰一分十二秒 2金萬敬 一分十八秒 3金應淀一分二十秒
◇飛虎、白雲對抗리레(一千七百五十米) 1朴賢民(飛虎)三分三十四秒一 2金亨根(白雲)三分三十八秒二
◇一般部(二百米)背進 1朴賢民三十八秒九 2李國星 四十秒 3禹鋪植四十四秒二

地方人事

▲沈相瑀氏(前陽村面長)지난廿四日金浦郡陽村面馬松里自宅에서 逝去

닭한머리훔치고
七犯으로監獄行
楊平郡下의"짠·발짠"

【楊平】본적을경성부공덕정(京城府孔德町)에둔 최원근(崔元根)(三〇)이라는자는 이십팔세때부터 절도홍을상습하야 이십륙년오개월동안에 감옥에서 지내다가 작년륙월에 감옥을나온후 우연히 양평군양서면(楊平郡楊西面) 중앙철도(中央鐵道)공사장을 찻다가 전비를 끈지지못하엿든지 지난일월십오일 오전두시반경에 동면룡담리(龍潭里)강차산(姜且山)집에서 닭한머리를 훔치려다가 때마침 구녀말경게를 하든 순회하든경관에게 체포되여 기간양평경찰서 박(朴)사법주임손에서 취조를마친후 일건서류와함께 지난이십팔일 검사국으로 넘어갓다한다

農村을좀먹는
賭博團을一掃

【楊州】새해에드러 군내각지에 도박(賭博)이 성행하야 농촌의 피폐에영향이 적지안흘뿐더러 범죄의 실마리를맨든다는견지에서 양주서장(井上署長)은 이를철저히 박멸코저 서원을독려하야 이를소탕중이라는데 대개가 투전、화투등으로 약간돈전을걸고하다가 검거되여 초범(初犯)에 일금으로 각이십원식 벌금령에처하얏는데 구정초에도 철저히 소탕하야 이를소멸코저전력을다하는중이다 최근검거된씨명은다음과갓다

楊州郡廣海面下鳥高嶺里 張於福 楊州郡廣海面下德里 申鉉昊 梁先龍 楊州郡九里面長湖里 徐石干 李白文 吉錫昌 楊州郡瓦阜面陵內里 許允先 金正根 張玉山 康基永 鄭元變 張拜煥 金成伯 金昌吉 楊州郡廣海面佳納里 李龍仁 金壽童 申基俊 楊州郡金面加里里 李昌鳳 徐興文 李鍾萬 諸錫玉 楊州郡瓦阜面松村里 金必男 金成培 金泰山以上各二十圓罰金刑

仁川府內各公普校
一日부터願書接受

【仁川】인천부내각공립보통학교에서는 이월일일부터 생도를모집한다함은 기보한바와거니와 각학교의 모집정수(募集定數)와 모집구역(募集區域) 원서제출(願書提出)과 입학지원자의 주의사항은 아래와가트다하며 일반아동보호자들은 만히참작하기바란다

募集人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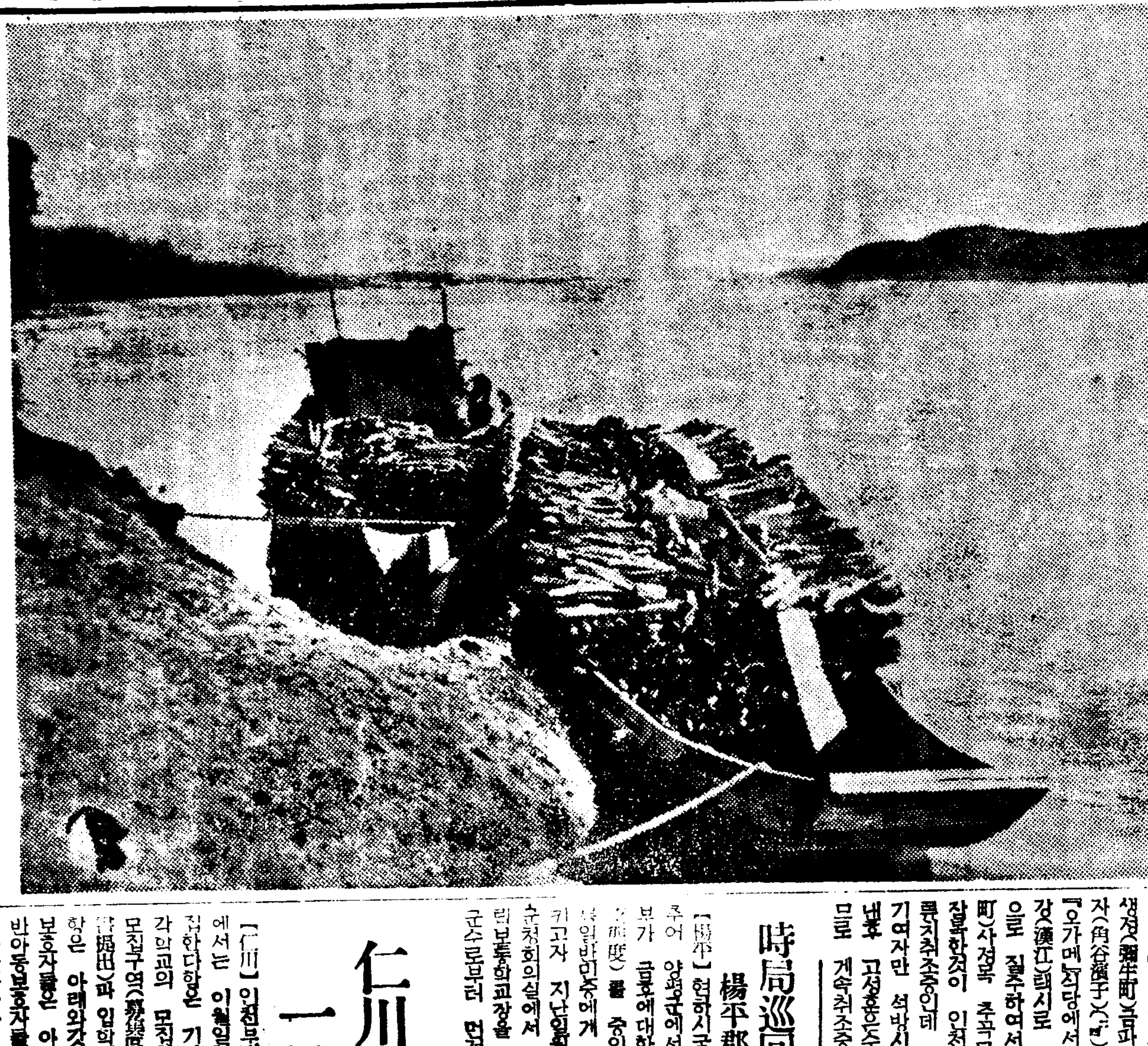
昌榮普校 (男子一四〇名)(女子一四〇名)
松林普校 (男子七〇名)(女子七〇名)
朱安普校 (男子二五名)(女子一〇名)
大和普校 (男子一四〇名)(女子七〇名)

入學兒童의年齡은 昭和四年四月二日부터 同七年四月一日까지의 出生한者에限함

募集區域 昌榮町 金谷町 栗木町 龍雲町 京町 西京町 山根町 龍岡町 萬石町 松峴町 花房町 濱町 本町 仲町 山手町 滿町 海岸町 港町 宮町 新町 旭町 松林町 松峴町 花平町 花水町 以上昌榮普校 又는松林普校에 願書를提出 朱安普校에提出 大和町 敷島町 花町 以上은大和公普校에提出 萬石町 松峴町의居住者는 府에서別途考慮함으로 願書를 仁川府內各公普校에 提出함事

願書提出期間及 受付時刻 自二月十二日부터 至同末日까지每日午後三時 同五時 但土曜日은 午後一時三十分 同四時까지 休日除

手續에對한注意—入學志願者의保護者는 上記募集區域을좃차서 當該學校로부터 入學願書를 受取하야 必要事項을 記入한後 仁川府廳으로부터 戶籍謄本을 受取(府內에本籍을둔者는府에서 願書에 戶籍證明을하고 다시戶籍抄本을添付)하고 通信料二錢切手를添付하야 期間에當該學校에 提出하고 番號票를 受取할事



봄물에 밀려온 나루ㅅ배 (西森島에서)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畵 【39】

소굴(七)

배돌석이는 잔히지안흔 운수가 뻐처서 판속들 오기 바로전에 발뒤를 보라고 마구간여페 따로떨어저잇는 뒷간에 나와잇섯다 배돌석이가 뒤를 다보고 뒷간에서 나오다가 복새탈른 사람들이 안마당으로 몰어오는것을 히미한 별빗아래 바라보고 먼저와잇든 수교에게 자기본색이 탄로되어서 판속들이 자기를 잡으러나오는줄 선뜻 짐작하얏다 남의입는 무기(武器) 팔매돌주머니를 방에 두지안코 가지고나왓더면 그까지 판속멋명 안중에 둘성도업섯지만 무기를 안가지고는 별수가업서서 구차스럽게 은신할곳을 찾는다 뒷간아페서 뒷울안으로 돌아오는데 시발소리를 내지안흐라고 신을벗어서 손에들고 맨발로 색씨걸음을 걸엇다 버선은 버서노코채 두고맨발에 신을되고 나왓든것이다 마루에 북차이잇스나 다행이 … 안방뒤를 살그머니 지나 부억뒤에까지 와서 울타리의 개구멍으로 밧게 나가라다가 나종금하면 어쩌한든지 우선방장 버스럭소리 내는것을 부지럽게 생각하야 부억뒤에 가만이숨어잇섯다 안마당에 불비치 비치더니 방문 열어제치는소리와 여러사람 으악소리가 일시에 나서

「저놈을 빈방을 드리친구나」

배돌석이는 판속들의 허탕친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는중에 별안간 밧게서

「여기 한놈 뛰엿다」

외치는 소리가 나며 곳 안에서

「회하나 사람들만 엿피 쫏처나가게」

지휘하는 말소리가 들리엇다 잠간동안 시발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뒤가 괴괴하야 배돌석이가 살면이 부억안으로 드러와서 안마당을 내다보니 마구간근처에 횃불빗과 사람그림자가 어른거리엇다 마당과 마루에 사람이 업는것을 보고 배돌석이는 부어케서 전넌방으로 와쉬 팔끼지에 걸어두엇든 돌주머니를 떼어나려서 손에 드니 우선 안심이되나 밧안에서 줄매질이 거북하고 또 도망질한 좃개가 혹궁하야 버선만 신고 다님도 못치고 바로 헛간으로 발글 나오는데 횃불은 뒤울안에잇는듯 마루 북차문이힌하얏다 좃개들이 어는틈으로도망하얏든지 몰라서 배돌석이가 어둠컴컴한 처마미테 잡자배서리고 섯는중에 마치이옷집아페 나섯는사람들이

「그놈이 도망치가벳」

「그놈 항교발 디로가서 복잡히네」

지거리는말이 귀에 들리어서 향교발거로 오게되엇다 배돌석이가 항교발을 거의 다왓을때 마즌편에서 허럭허럭나가 오는것을보고 겁결 으슥한곳에 몸을 숨기고잇섯다 판속 다섯이 마부노흘하든 좃개를 부차아가지고 오는데 하나는 횃불을 들고 아페서고 들은 좃개의 양쪽옥지를 치켜들고 중간에서고 뒤에오는 들은 손에 바퀴이를 을 들엇섯다 배돌석이의 신통한재주 련주(連珠)돌매가 잠간동안에 중간의들과 뒤의들을 꺼구러트리니 아페하나는 횃불을 내던지고 어둠속으로 도망질하얏다 횃불이지펏에 불이잇든지 불은 뚜지지하고 바로 꺼젓스나 늣게또든 달비치 우리기 시작하야 어둠이 차차로엷버젓다 배돌석이가 판속들 꺼구러진 자리에 와서 판속의바망이로 판속들을 지두들겨서 죽저럼 일어나지못하도록 만들어노코 비로소 좃개를 돌아보니 좃개는 양쪽어깨를 번가려만지고잇섯다

「어깨는 왜 만지느냐」

「양쪽어깨죽지를 방맹이루 어떠케을서 마젓는지 살이 죄다 으스러진것 갓습니다」

「너혼자만 잡혓든냐」

「소인이 자다가 으악소리에 초풍해서 일어나보니까 소인만 남엇습니다 잘들도망을 깨우지앗구 혼자먼저 도망하든그런 천하의 몹쓸놈이 어듸잇습니까 소인이 방문을 박차구 깁겨리루 뛰어나오는데 사력한놈이 방문밧게 지키구잇다가 봇장이러 대들드다 그래서 눈깜이 죽빠지두록 눈둥이를 후려갈기구 도망질을 처습니다 밧채만 일으킬이면 저깐놈들한테 붓잡혀지안을것데 잠들엇다가서 허뭇지롱하다가 붓잡혓습니다」

「고만 지거리구 가자ー」

「어듸루 가잡지요」

「나만 따러오너라」

배돌석이가 좃개하나를 다리고 이날밤에 밤길로 검수(劍水)역말을 지나오고 이튿날아침부터 파괴질을 시작하야 흉년심에 가진고생 다하고 사흘만에 청석골로 돌아왓다

有給社員招聘 一、年齡 一、住所京城府內 … 日本教育生命

出張所長招聘 平南北、黃海道中心으로希望者 … 大正生命 日本教育生命 平壤支部 (電話二三〇二番)

朝報案內

早漏防止 (淸導補腎丸)

性器強大藥 男子性器短小와發育不全 早漏에百發百中

現金賣都 絹·布·綿 東順德 地方人士歡迎

長崎支局 電話一二六番

官認 朝鮮無線工業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鍾路町一의八三 電話本局三〇六五番

五山高等普通學校 生徒募集

FUSUSEN モルヒネ中毒患者ニ 福壽仙 ヘロイン・コカイン・コデイン・阿片 福壽仙의作用及特長 特約店募集 價格 製造元 株式會社 大阪製藥公司 大阪府布施市下小阪六六四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円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오케-레코-드 流行歌 12091 독수공방

時計大廉賣斷行 新義州驛前 合名會社 三一洋行 ▲時計修繕도酬應

小資本企業案內

藥으로滋味나는돈모으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日本通信製藥學校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町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總販賣部

賀正 禮山 禮山稅務署 禮唐酒造組合 禮山金融組合 禮山面事務所 東一銀行 三共商會 金浦 金沙面長 李建奎 本社大邱支局 電話一四四三

水稻優良品種更新 正租의乾燥調製
積極的進出·要目決定通牒
各道에서徹底히勵行

水稻優良品種 種子更新과 正租의乾燥調製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積極的으로 進出키로되여 關係者 各道擔任者를 召集하야 그對策의 具體的方策을 여러가지로 諮問協議한바잇섯는데 道間이 要目을決定하야 各道에通牒하야 勵行케하엿다 通牒內容은 다음과갓다

一、次年度以降、水稻採種畓의 指導上必要한具體的施設에關한件

가、種子更新事業에對하야 道部는 一齊督勵할것
나、採種畓關係職員及 道農事試驗場職員으로하여금 積極的으로 實地指導에當하도록 方法을講究할것
다、郡또는 郡農會에 專任指導職員을 設置할것
라、道又는 道農會主催의 審査會等을 開催할것
마、郡、邑、面及 水利組合農場等의 指導職員에對한 稻作技術과 採種畓經營에關한講習會를 道農事試驗場等에서開催할것
바、採種畓耕作者에對한 實地傳習會를開催할것
사、道、郡、面의指導職員及耕作者로하여금 道內와道外의優良採種畓을 視察硏究케할것
아、更新區域內近家로하여금關係採種畓을 視察케할것
자、府、邑、面關係職員에게對해서는採種畓經營과 種子交換等의主要行事에對하야 時宜에適한協議를하야 充分徹底케할것
차、種子更新後의劣變防止에關한施設을 講究할것

二、正租의乾燥調製改善에關한件

一、正租의乾燥
가、落水期後는 低濕한 集團地區는 그關係者가 一齊히 排水케하야 水面의 乾燥를 圖할것
나、適期刈取를 勵行할것
다、乾燥方法은 各道의 事情에따라 有効適切한 方途를 엇기쉬하되 立木、竹材等을 엇기쉬운地方에서는 稻架乾을 勵行하고 그러치못한곳은 束乾을 하야 그方法은 極力 直徑四五寸程의 小束으로할것、地乾에는 低濕地를 避하고 山麓傾斜地等을利用할것、本畓整地時晴天乾燥를 行하고 畦畔乾을 勵行할것、乾燥한 稻束은 速히 脫穀하고 또는集積하야 覆蓋할것 極力脫穀後遲延乾을 勵行할것

(二) 正租의調製
極力籾摺調製及 風口選을勵行할것、調製(及乾燥)委員의 審及을 圖할것、極力品種別의脫穀、調製를 勵行할것

(三) 奬勵方法
가、區域과 年限을定하고 集團的濃厚指導를 行하고 順次全般에及할것
나、濃厚指導中止以後에 成果의 維持進展을 圖할것
다、指導員或은 督勵員의 設置를 考慮할것
라、正租檢査前에 可及的 豫備檢査를할것
마、正租共同販賣와 穀物檢査機關과 連絡하야 優良正租의 有利한 處分을하도록할것

鮮銀對支業務協議

鮮銀에서는 一日午前十一時부터 同行會議室에서 公森副總裁 大塚理事以下關係者가 參集하고 入城中의 齋藤天津支店長을中心으로 北支에對한 今後의業務方針에對하야 協議를거듭하엿다한다

經濟 朝鮮 說
爲替淸算問題

今日 우리國民에게 課된 使命은 長期抗戰에 견될수잇는 戰時經濟를 運營할수잇슬가하는 問題以上으로 緊切하고 重大한 課題는 업는것이다. 第七十三議會가 再開된 以來 衆貴兩院을 不問하고 또는本會議나 豫算委員會나를 不問하고 財政經濟問題가 論議의 中心이되어잇는것과 그自體가 國民關心의 方向과 熱度가 那邊에잇는가를 反映하고잇는것으로서 世上의 視聽을 集中하고잇는것이다.

公債의 增發이 强行되는 限 『인풀레』化하는것은 不可避한것으로 物價가 騰貴하는것도 自然이라고 할수밧게업다 이物價騰貴의 傾向은 專門家의調査發表한 數字에 依하야明示되여잇스므로 새로히 말할必要는업스나 輸入品과 國內品의 物價가 下落하는傾向을 보히고도 東京에比하야 比較的 나즌狀態에잇다는것은 强化된統制下에 잇는까닭으로 輸出入의 差가 敎示하고잇다는것을 생각할때 重要視치안어서는 아니될現象이라고하겟다.

八億圓의 正貨現送을 堅持하고·또 新產金年額을 目標로하야 軍需品의 輸入을 組織化함으로써 國際貸借의 均衡을 維持하라는 努力은 政府가 이것을 敢行하기로 決定된것은 滿洲國各大臣이 議會에서 答辯한것으로 明白하게되엿다. 그러나 그目的實現은 一般物品의 輸入을 最大限으로 制限하라는方法을 徹底的으로 强化하는條件으로 하지안흐면 達成할수업는것은 한 效果를 期待하지안흘수업다 事實이다 吉野商相이 一業一貫의 實際에 寄與하기를 爲替淸算制度를 採用할것이라는것을 言明한것은 그間消息을 말하는것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 商相은 各鮮에依하면 洽局은 卽及 亞米利加를 對象으로하는 爲替淸算協定締結을 目標로하야 現在硏究中인데 不遠中結果를 어들것이라고한다.

爲替淸算의 徹底가 實現하야 爲替淸算協定에로 나아가는것은 國民經濟主義에잇서서 統制經濟의 高度化에 이르는 過程이라고볼수가잇다. 爲替淸算制度는 人類의 理論的 集成으로 미리 考案하야 實行을 어든 滿洲工作이라고 하기보다는 一九三一年七月 獨逸의 政府는 爲替統制의 强力한 實施를 國際收支均衡維持를 보앗다 世界經濟의 自由가 마츰내 一九三一年十一月十四日 獨逸과 瑞西가 最初로 締結한 爲替淸算協定으로 한것이 그以來의 歷史는 그리지것은 아니다. 그러나 今日까지의 經過는 實際의 輸入을 促進시키고 國內物價의 實際價格이 國際價格보다 높은價格으로 物資를 購入하는 矛盾에 陷하여 淸算協定의 實際는 經濟力이 强한나라로 부터의 輸入을 防害하고 世界市場에서 高價로 購入하는 貿易이된다.

한國家가 存在하는 限 淸算制度에 의하야 국제收支를 어들수잇는 바는 手腕의 解決에 依한 輸入에 負擔하는 것이 잇어서 그國家가 輸出을 强要하는 限 貿易은 均衡되지못하고 끗나고만다. 다 本制度를 도입하면 本制度에 依하야 爲替淸算制度가 各國의 安定이 없으면 本制度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業者에게 보여주다. 和蘭의 淸算協定 四年以來의 所謂淸算制度 一九三四年以來 本制度의 特徵은 輸入業者가 自國의 貨幣로 貸金을 淸算하고 그代金을 支拂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制度는 政府의 統制가 있어서 輸入과 輸出을 均衡시키는 實際의 方法이 되어 있다. 本制度의 意義는 [illegible] 十二分의 [illegible] 經濟的으로 實施되는것은 國際的貿易의 淸算制度 [illegible] 『金』에 依存하는 國際的 淸算을 [illegible] 할것은 過去의 經驗이 敎訓을 주고잇다.

北鮮特產物
歐洲向直輸出增加

北鮮特產의 歐洲向直輸出은今年은 一月 日本郵船의 阿波田丸이 멋수일一千돈을 淸津에서積載하엿는데 二月中에는 다시 松江丸(日本郵船)이 『밀』一千五百噸과 弗弗利加丸이 『밀』一千噸을 汽船 또레푸스號가 魚油千돈을 積取키로 決定하야 最近北鮮으로부터 歐洲向直輸出이 顯著히 增加되엿다

懸念資金二千萬圓의 貸出에 對하야 具體的으로 協議를 行하엿는데 貸出의 審査委員會는 今月十日까지에 設置키로 되엿다 現在 東拓、殖銀에 對한 貸出申請은 數百萬圓에 達하고 口頭에依한 貸出申請도 推算하면 二千萬圓을 훨신 突破하야 業者側에잇서서 資金의借入을 急히하고잇는實情에잇스므로 確實한것만에限하야 實際貸出을 行하고 審査委員會가成立한後 追認을求하기로하엿다한다

蠶業協議
今月末에開催

總督府農林局에서는 來二十八日부터 三月二日까지 三日間總督府第二會議室과 水原農事試驗場에서 各道蠶業主任官과 原蠶種製造所長協議會를 開催하고左記事項을 附議하리라한다

▲諮問事項
一、昭和十二年에 飼育한 指定獎勵蠶品種에對한道 蠶種製造者、養蠶家、製絲業者의 意見
二、道原蠶種製造所의 試驗調査結果를 一般에應用하고 그効果가 顯著한것이잇스면 그槪要
三、現行蠶種指定獎勵品種中廢止하야도 無關하다고 認定되는것과 新規追加를 希望하는것及 그理由

▲協議事項
一、軍需用品賣絹製造計劃
二、蠶種供給
三、蠶種類共通試驗
四、桑田混作

漁船無電에 新電波追加

科學的漁撈法의 發達에伴하야 小型漁船의 無電施設이 增加되는中임에鑑하야 遞信省에서는 一般漁船專用의 電波를追加設定하고 混信의緩和를圖하얏는데 朝鮮에서도이에順應하기로되어 遞信局에서는 二日附로써 私設無線電信、無線電話規則中의 改正을行키로되엿다

產金資金 申請多數
上旬中委員會

產金獎勵資金의 貸出에對하야서는 三十一日 石田總督府鑛山課長이 佐藤東拓金融課長 中富殖銀審査課長을 招致하고 產金

寸鐵

三億增稅의目標는 公債利子支拂, 國民負擔均衡이라고 藏相答辯

○ 物品特別稅 其他消費課稅의 增徵을비롯하야 煙草價引上에 까지至함은 너무나大衆過重負擔에 치우치는것이 아닐가?

○ 手續만煩雜하고 增收가얼마 안되는細目別增稅보다는 차라리『잇는者』로부터 한목바더 들일재조는 업는가?

○ 銃後國民의 義務로서의 奉公은 獻金、少額公債等을 通하야 自發的으로 얼마던지할수잇는 것

○ 物價高騰의原因인 大衆稅等으로 國民의負擔을 鎖沈식힘은得當치안은일

○ 生產擴充 그것을 資本家와의 妥協에 依한 統制經濟에 依하야 遂行코저하는 政策에잇서서 所謂『產業을委縮』시킬수업다는것이지만

○ 戰時財政을 料理해갈만한 政治的力量잇는 藏相이 나오라면, 에런 舍音작난은 안해도 되련만은……

○ 時代色울며인 產業界의 潮見는 『鮎川』과 『津田』

○ 鮎川은『日產』을『滿洲重工業』으로 脫身시키어 滿洲에서 雄飛

○ 津田은『鐘紡』을『鐘淵產業』으로改組하야 北支開發의 一役을 擔當코저 計畫中이라고

○ 兩者共히 技術者出身으로異彩的存在

○ 藏相도官僚보다는 이런배人장잇는傑物(?)이必要한데……

『金』의重要性

世界通貨가 所謂 金本位制度를 採用하고 잇는限『金』은 國際及 國民經濟에 잇서서 必須不可缺의『貴金屬』이라는것은 重言할必要가 업스나 그產出額은 世界를通하야 極히 少量이여서 各國의需要額을 完全히 充足시키기 어려운것은 周知의事實이다.

그리고 世界大戰中과 大戰後에 잇서서『金』이 亞米利加或은 英佛等 各國으로 集積되여 所謂 金偏在傾向이 顯著하고 그傾向이 因果關係를 매저 國際經濟의 表象에나타나 至今까지의『有無相通』의 原則은 次次 世界經濟의 前面으로부터 그림자를 감추게되여 各國은 平價切下、貿易管理等의 應急措置를 講究하야 漸減하여가는『金』의 國外流出과 自國財政經濟의 補强에 備하엿든것이다.

×

그래서『金』의 增產은 現行通貨制度가 持續되는限 世界各國 特히 金을『가지지못한나라』랄하자면 我國과같은나라에는 國家經濟의 基底를이루는 最重要問題로서『金』이 업시는 我國의 存亡危機에 處하여잇는程度이다. 왜그러냐하면 特히 我國과가티 各種의 天然資源이 缺乏하야 必要物資를 海外로 부터의輸入을밧지안흐면 아니되는 나라로서는 輸出이 그以上을넘어서 所謂貿易差가 受取勘定이 되지안는限 一國財政이나 產業經濟나 드되어는 支持할수업는 結果를치지안는다고 保證할수업다.

×

時局 滿洲事變以來 急速度로 表面化한日本民族發展의富面對策인 大陸政策의强化와同時에 生產力擴充計劃이 急速으로遂行하고 또今番事變의發生으로 各種軍需關係資料等이必要한限 當然必要物資의 國內不足或은 皆無인것의 海外輸入어 不可避한現象에 處해잇다. 더욱어 그때문에는 輸出入品에對한管理 卽貿易統制와 輸出振興等의 對策等도 緊切하지만 何如튼『金』을 獲得할것과『金』의增產을 圖謀할것 또는그使用을統制하야 可及的無用한消費를 省略하는等은 當然히考慮하여야할 對策이다.

我國政府에서도 이觀點에立脚하야 昨年에는 產金法을 實施하야 積極的으로 金의增產을圖謀하고 또 年末에는 金使用規則을 公布實施하야 其消費를 制限하는등 各種의施設을 急히하고잇스나 아직 此等施設은 겨우 緖作일뿐으로 말하자면 產金法에 依한 增產計劃(五個年後에 內外地 合計 約七億圓의產金)이나 또 消費的인 使用制限이나를 莫論하고 各種事情으로 果然 政府가 所期하는程度의 成果를 어들수잇슬가 엇즐가가 疑問이다 그래서 今期議會에서도『金』의增產이 生產擴充 貿易統制等 諸種問題에 關聯하야 議論된所以이지만 何如튼 非常時局下의 國民은『金』의重要性을 再認識해야한다는 것은重言할必要가업슬것이다.

朝鮮農會新規事業
魚肥도製造開始
肥料事業五年計畫實現

朝鮮農會의 肥料配合과 肥料購入斡旋事業은 三十一日의 通常總會에서 肥料特別會計豫算百十六萬圓이 承認되엇는데 本年度에는 肥料配合 豫定六百萬叺(二千四百萬圓) 單肥購入斡旋六百萬圓合計 三千萬圓의 肥料를取扱할 豫定이오 農會의 肥料事業은 當初五個年計畫으로三千萬圓豫定이엇슴으로 겨우 三年만에 五個年計畫이 實現된다는 肥料關係의 新規事業으로서는 如左하야 特히 本年부터 魚油製造를 開始할것은 注目된다

一、淸津(配合能力二十萬叺)西湖津에 配合所를新設
二、鎭南浦、仁川、木浦의 配合所增築
三、魚肥製造、務安郡飛禽島에製造工場을 新設하고 魚油年產十八萬貫을製造

所要資金은 殖銀、東拓으로부터 借入할豫定이라한다

小野田三陟工場認可

朝鮮小野田세멘트의 三陟工場新設은 一月二十一日資金調整法에依하야 認可되엇다

適地適作을奬勵
土性調査協議會開催

總督府에서는 昭和十一年부터 十個年計畫 年十二萬圓으로써 肥料肥放의『히스』를 除하고 適地適作의 奬勵를하기爲하야 土性調査에 着手하야 十二年度의 實績을 基礎로서 三月一日부터 三日間道農事試驗場土性調査技術員을모아서 第二會議室에서 土性調査協議會를 開催하게되엇다 協議事項은 一、土性調査實施方法改良案 二、採集土壤及收穫物의送附方法 三、成績報告方法에關한事項인데 따로이 昭和十二年度土性調査槪要와 土性調査部豫定計畫에對하야 聽取하리라한다 三日의會議는水原農事試驗場에서 行하리라한다

京電收入
瓦斯만減收

京城電氣의 昭和十二年下半期의 營業收入은 電氣 電車 瓦斯를合하야 一日平均三萬一千餘圓인데 事變關係로 減收를豫想하엿든데反하야 電氣 電車는收入增이고 瓦斯만이 減收되엿는데 期末에잇서서의 收入狀況은 左와如하다

▲電車收入(一月平均) 二、六〇〇圓(對前期三增)
▲電燈 六六、六三個(對前期末二〇〇)
▲瓦斯 三、〇三立方呎(對前期末三〇減)

昨年簡保新加入數

今日局長定例會議에서 山田遞信局長이 報告한바에依하면 昨年中의 簡保加入件數는 三十三萬件에達하야 前年에比하야 五萬의 激增이라고한다

京電異動

京城電氣에서는 本年秋竣工의豫定인 工事가繼續되고 近日工事完成에 着手될것인데 能力은 十八萬킬로이라한다

經濟界消息

▲依願退社(殖銀課長)長島巖一郞 ▲命營業課長(兼金融課長)八木田武治 ▲命京城支店長(兼金融係主任) ▲命水原支店長 ▲命兼金融係主任(殖銀審査役)

○湯村農林局長 農會副會長으로推薦=朝鮮農會定時總會에서는 湯村農林局長을 推薦하얏다고

○貿易協會事務所移轉=朝鮮貿易協會에서는 二月三日理事會를開催하고 本月上旬中 事務所를 移轉키로되엇다

○三井物產京城支店長 榮轉=三井物產京城支店次長高月喜德門氏는 一月末의 同社異動에서 京城支店長에榮轉하기로 決定되엿다 同氏는 大正十五年 京城支店으로와서 爾來在鮮十三年에미치는 屈指의 朝鮮事情通인만치 今後益益 朝鮮과의交易上에 期待되는 點이만라 二月末에赴任할豫定이라고

今日의市勢 (一日)

(一月廿八日) 米穀商京城府 天然町一二〇 番地의三一號 金城鎔

株式不勢
鐘紡急落

前場採合 一月新甫이나高價取組인當限의 重壓이 잇는지라 不振이고 短期軟調로 當地도 依然採合이엇스니 鐘紡은 二百八十七圓五十錢에 低寄後九圓丁이엇스나 寄引同價이고 東新도 百六十六圓十錢 寄後七圓七十錢에 少强이고나서 七圓丁大引大新九十三圓四十錢으로 四圓丁、滿重八十八圓八十錢을 五十錢大引、朝新三十六圓九十錢寄後七圓四十錢에 올나고 七圓二十錢大引

後場下落 後場은 東新百六十七圓十錢 鐘紡二百八十七圓五十錢에 保合寄後 鐘紡의 急落으로 一齊低로大引

株式의再評價

生產力擴充에依한 重需景氣는 世界的으로 高揚되고 北支經濟의活動도시작되어 產業界의 發展은 空前의으로 再評價될것이다 昨秋豫想되던 以上으로 世界的重擴張爭의 再現이 拍車를 加케될것이니 游資側은 株券買하는外에 달리有利한것이어디잇겟는가 金融이潤澤하면 더욱그러할것이다 保險會社側이나 地方側이나 買物이 往入되고 鐘紡의增資도 今年中에는 實現되겟스니 株는大勢가 果觀된다

鐘紡增資目的
事業系統整理
◇…津田社長談

懸案의 鐘紡增資問題는 드되여 現在의 同社資本金 六千萬圓(全額拂込濟)에 三倍인 一億八千萬圓으로 增資하기로 內定하엿다는데 增資後의 運用方針에 對하야 三十日朝大阪에온 社長津田信吾氏는 例의 大陸政策을 一言하고 大要左와如히 說明하엿다

增資할것이事實이로서 時期其他未定이지만 增資하면 現在의 三倍가량으로 하랴고생각한다 增資는 社債借入金等의 辨濟로充當하라고생각하나 내가 增資하랴고하는 참目的은 膨大한鐘紡의 事業系統을 整理하랴는까닭이다

그리함에는『鐘淵產業會社(假稱)』라는것을 만드러 持株會社를 만들게될것이다『鐘淵紡績』

期米 上鞘發會
伸惱

前場伸惱 今朝阪地는 當限三十二圓九十錢인 一丁高 中限四限은 三十四圓十錢인 四丁高新甫四限은 三十四圓二十九錢인十八丁 上鞘인울따라 當地는當限은 一圓五十五錢인 五丁高로新甫四月限은 三十一圓三十八錢인 十五丁上鞘로 場을始한後 阪地의 小戾을伴하야 九節二十三錢 六節二十一錢으로 七十四、五錢에서 採合하다가 結局阪止二十二錢을보고 七十六錢에止場하다

後場軟弱 後場은 三十一圓七十二錢에四丁低로 始場後二節七十三錢으로 五節七十一錢에軟弱하얏다

東京國債市勢

甲號五分 一回四分0二十五 二回四分0 一二十九年物 二十三年物 二十八年物 米五分半

各地期米新甫鞘

地名	中限	新甫	鞘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熊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甫四月限은 阪地는 中限三

新甫上鞘發會

市場六感

(株)…二月新甫도保合裡平凡하기도 實抑하는때문에 더러가무저운모양 ▲東新을抑壓하야 雜株를 牽制코저하는 策戰은 常例가되어잇는데近者는 特히 顯著 ▲예結果는東新을 賣込하야 意外의 反撥을 招致할것인가? ▲經濟界의 基調는 依然樂觀途上에잇는것으로 悲觀할것이라가업다 ▲滿支의 모든 經濟開發은 一層我產業의 모든 部門에 好影響을줄것 ▲株界도 二段三段의 活躍을期할것이나 ▲但波瀾이 激甚할것도 覺悟해야할것

(米)…買上을 中心으로한市勢로 이미一段落을 告하엿다 그러데 아프로 第三段買上을 하느냐하는것이 問題 ▲그러데實上의 漏落米處分如何가 一波紋을일으킬것은 事實인데 果然어떠한 行動을 加할모양?▲그러나農家의 態度는 依然頑强하야 賣惜不息하므로써 正租는 亦是强硬 ▲正租가强하고서 正米의反落은 期待할수업는것만은 事實이데 今後短期肝臟이 解除되면 一落을免치못할듯도한바果如何(壽山)

買上行動一巡

今回政府米百萬石買上은 余定完了되어 一時는 一段高를 豫想하게하엿스나 其實成績이 良好는 못되었다 買上價格의 低廉한것이 一因임으로 此는 오히려弱材視할수잇고 또는 朝鮮米買上은 적어도八割은占領할것으로 觀測하엿든것에 겨우 二十萬石에 不過하야 朝鮮의 浮動米를 一掃하지못하엿음을보아서 또한弱材視할수잇다 그래서 昨日當地의 十六丁反落을告한것이데 此는買上成績의 反對行動으로 또한買上을中心으로한 市勢라하지안흘수업다 그럼으로 買上도 既히陳材化하고 아프로 남은 强材는 第三次買上을 期待하는모양이데 果然第三次買上의 實現如何는 아직 알수업고 다만漏落米의 今後處分如何에따라 一波瀾이 잇슬것만은 事實이다 그러고 勞도五、六月이나 繼續하야왓슴으로 正米의 事情이 如上함에도 不拘하고 續騰하라고는 謂키難할것갓다

仁川在米增加

一月三十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六、三二一叺의 增加量을示하엿는데 在品을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四斗入 一五二、五一六叺 ▲白米四斗入 一三、〇四〇叺 ▲白米四斗入五 一、〇七八叺 五斗入五〇〇叺 俵入六、六五一俵 ▲大豆 正租一五八、七〇九叺 ▲小豆一、〇五一、六九六叺 ▲大麥一五叺 ▲小麥一七叺 ▲粟九五三叺 ▲在五〇〇叺 ▲綠豆五三〇叺 ▲蕎麥一六二、二九一叺 ▲糯米一五〇叺 俵入一、九五七俵

米正 傍觀裡에 閑散

京城不變 月初이나 萬正關係와定期新甫平穩發會로一般의 氣勢不良하고 必需側의 小口買로 保히閑散이엇다 ㊉三等三一、二〇、一、〇〇 一等 白米一七、七五

仁川保合 定期豫想과如히 新甫十五丁의 上鞘로平凡發會하야 保合이라 現物正米도 賣正漸係로 實買가업서 雙方共히傍觀保合이다 穀良三等三一、二〇 四等三一、〇〇 銀坊主三等三一、二〇 多賣鎭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 ⑩一二、七五 ㊉一一、六五

釜山伸惱 萬正으로產地가 無이오 當地商人도 傍觀함수밧거이 休業狀態로서 新規賣物이皆無이오 朝來定期의不勢로 場面은 閑散하고 市勢는伸惱商狀을示하야 一般으로內地注文狀態이다 ㉢穀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一二、七六

大邱保合 各地期米新甫平凡發會保合으로 月初이면서 場面은 活氣薄이고 當用小口의必需買가 散見될뿐이오 閑況을呈하고잇다 ㉢穀良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六〇 一等白米一二、五五

群山上向 奧地는 萬正關係로 賣物皆無이오 正租의依然한頑强으로 市中에의廻米가업고 新甫好感으로 實需精米側의買氣가잇서 市勢는十錢이올랏다 銀坊主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一三、〇〇

木浦落付 政府朝鮮米買上不成績을念慮한 市中人氣도 沓正奧地의實物이 업는同時에 各地期米의頑强으로 多少回復된氣色으로 前價同樣程度로 安定을 보엿고 目前低이면 第三次의買上을 물것이라는 意向도 잇다 ㉢三一、七〇 三一、五〇 一等白米 一二、九五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十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一等白米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 (單位錢)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大阪三品(單位錢) [illegible]
綿絲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海外經濟 (一日)

[illegible]

銀行券 (一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金利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對英 一圓에 [illegible] 對米 百圓에 [illegible] 對支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京城物價 (一日)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鑑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地米 [illegible]

綿絲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期米 株式 趙俊鎬取引店

京城 仁川 益康 金益證券

京城·證券部·期米部·仁川 福 吉村取引店